

24일 Market Index			
코스피	6690.62	코스닥	748.22
	(-406.27)		(-42.06)
금리 (국고채 3년)	3.959	환율 (원·달러)	1459.00
	(+0.042)		(-7.60)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소비자 '환영'
약사회 '반발'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韓·美 글로벌 빅테크 1390조 AI 협력 시동

AI공급망 구축 본격화

삼성전자와 SK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엔트로픽 등 글로벌 빅테크와 총 9500억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협력에 나선다. AI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AI 팩토리, 소비자 AI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AI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국내 기업들과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AI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및 전략적 협력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핵심 공급망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브로드컴, 292조 협력
삼성SDS-엔트로픽, 파트너십 체결
SK-엔비디아 731조 AI인프라 구축
네이버-엔비디아 AI 팩토리 확대
현대차-엔비디아 피지컬AI 협력

가장 큰 규모의 협력은 삼성전자와 SK그룹이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오는 2030년까지 총 2000억달러(약 292조원) 규모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양사는 AI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2나노미터(nm)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활용한 AI 반도체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 단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삼성SDS도 생성형 AI 기업 엔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AI사업 확대를 위해 공동 마케팅과 기술검증(PoC), 응용형 AI 엔지니어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3주간 (7월 27일~8월 14일) 지면을 감면 합니다.

지면은 줄어도 선택과 집중으로 생산한 다양한 뉴스를 인터넷 메트로신문(metroseoul.c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합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5000억달러(약 731조원) 이상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국내 27기가와트(GW) 규모 AI 클라우드와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SK하이닉스의 HBM4가 적용된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첫 번째 AI 팩토리는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소비자 AI,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컴퓨팅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엔트로픽과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도 AI 데이터센터용 서버 메모리 공급 협력을 검토할 예정이다.

네이버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낸다. 엔비디아와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의 투자 및 지원을 바탕으로 세종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AI 팩토리 구축 규모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1GW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와 오픈 모델,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도 엔비디아와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구축, 웨이모와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 등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새만금 AI 밸리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AI 반도체 공급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AI 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력은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분명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성과는 협약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발표한 사례 가운데 계획대로 추진된 경우도 있지만, 흐지부지된 사례도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 투자 집행과 정부의 인프라·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협력에 나선 기업들이 GPU와 AI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메모리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李 지시에 '공직 감사' 대폭 강화...28개 부처 63명 증원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 포착...수사망 확대

/사진 뉴시스

▲국힘 "與,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규명 위한 野 추천 특검 발의해야"
▲국힘, 최고위서 '권영진 먹살' 후속조치 논의...윤리위도 예정

▲원희룡, 출국금지 해제에 "특검 1년 넘게 기본권 제한한 이유 설명하라"
▲조국혁신당 신장식, 노회찬 묘역 참배... "뿌리튼튼한 자강의 길 걷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열린 글로벌 AI 리더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 회장, 김용범 정책실장,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 대통령, 흑 탄 브로드컴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뉴시스

李 대통령 “한·미, 다음 세대의 삼성 만들어 낼 수 있어”

美 실리콘밸리서 VC 만나
“기술·스타트업 등 협력지평 확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VC)를 향해 “한미의 강점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이들 벤처투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한미 혁신 생태계 간 전략적 협업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밋업'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앤드리스 호로위츠와 제너럴 캐탈리스트, 세와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대형 벤처캐피탈 6개사가 참석했다. 글로벌 투자사들은 일제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자본과 시장을 만나고, 미국의 투자자와 혁신 기업이 대한민국의 기술, 제조, 인재 생태계와 연결될 때 양국은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기술에만 있지 않다. 빠른 실행력과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민의 자력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M-커버스토리

월급 383만원 중 현금사용 32만원 불과

‘현금없는 사회’ 성큼

‘현금 승차 불가 버스’ 도입하고
프랜차이즈들도 현금사용 축소

현금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휴대하기 쉬운 카드나 별도의 결제수단 없이도 휴대전화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가 보편화되면서다. 전국 대부분 도시에서 버스 승차 시 현금 사용이 어려워졌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카드나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에 중점을 두고 현금 사용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현금 사용도 빠르게 줄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6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국민이 한 달 동안 활용한 현금은 평균 3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의 80만8000원과 비교해 10년 만에 약 40% 수준으로 줄었다.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현금 사용률은 더 빠르게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383만4000원인데, 2015년의 274만원과 비교해 약 40%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대비 현금 지출은 29.6%에서 8.4%로 줄었는데, 소득에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약 72% 가량 급감한 셈이다.

현금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카드·

간편결제 앱 등 '비현금지급수단'의 사용이 증가해서다. 휴대하기 쉬운 카드나 휴대전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간편결제가 보급되면서, 휴대의 불편함이 크고 분실의 위험성도 존재하는 현금을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

현금 사용률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현금 없는 사회'도 부쩍 다가왔다. 서울과 울산은 제외한 4개 광역시는 버스 승차 시 현금 사용이 불가한 '현금 승차 불가 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전국의 시급 지자체에서도 같은 제도를 빠르게 도입 및 확대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편의점 상비약 최대 20개… 소비자단체 ‘환영’·약사회 ‘반발’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

정부, 상비약 지정고시 개정 계획
무약촌 일반 소매점 등 판매 확대
편의점업계, 매출효과 제한적 전망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 의약품(상비약) 품목을 확대한다. 소비자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상비약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편의점과 약국이 없는 무약촌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상비약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추가 효능군과 제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약품 제도는 2012년 11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와 공휴일에도 편의점을 통해 가정에서 필요한 응급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약품을 가벼운 증상에 한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안전상비약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수 있는 약품으로 한정하고, 장관이 20개 이내에서 판매 대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시에 지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약품이지만, 이 가운데 2개 품목은 생산이 중단돼 현재는 11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품목 및 판매처 확대에 대해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공공 인프라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와 달리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데다 판매처가 확대될 경우 의약품 보관과 유통기한 관리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상비 의약품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히려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전국 1000여 개 안전상비약품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매년 94~97%가 판매자 준수사항을 최소 1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우선할 과제는 품목 확대가 아니라 부실한 안전상비약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상비약 품목 및 판매처 확대는 심야시간 약국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상비약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2026년 4월 기준 전국 242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경기도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도 39곳에 달하지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은 8.7곳에 불과하다.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도 각각 6곳과 5곳에 그친다. 여기에 약국이 아예 없는 무약촌도 전국 556개 읍·면·동에 달한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윤

영비 현실화와 개설 단계부터의 지원 확대, 취약지역별 최소 배치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상비약 품목 및 판매처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소비자단체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이 낮고 포장 단위와 표시 기준, 판매수량 제한 등을 통해 관리 가능한 품목에 한정된다”며 “안전성은 품목 확대를 막는 이유가 아니라 적절한 기준과 관리 체계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매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상비약 매출이 전체 매출의 1%에도 미치지 않아 품목이 늘어나더라도 점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미국은 약 30만 종, 일본은 1000종까지 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확대하더라도 20개 품목에 불과하다”며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유의미한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유통·식품가 원가 쇼크… 햇반 등 가격인상 태풍

고환율·국제유가·인건비 등 영향 업계 “원가압박 누적… 한계 상황”

가공식품부터 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유통·식품가 전반에 걸쳐 제품 가격 인상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컵라면과 식빵, 햇반은 물론 만두, 참치캔, 도넛, 커피까지 가격표를 고쳐 달지 않은 품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중동 정세 불안이 불러온 고환율과 국제유가 급등이 가공식품 및 포장재 원가 부담을 극단으로 밀어 올린 데다, 올여름 장마와 폭염까지 겹쳐 신선식품 가격마저 요동치면서 가게 밥상물가에 대형 경보가 울렸다.

◆가공식품서 외식 메뉴까지 ‘줄인상’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스낵과 용기면, 음료 등 43개 브랜드 출고가를 평균 5.8%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표 상품인 육개장사발면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새우깡(90g)은 15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전체 라면 판매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봉지 라면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베이커리 및 디저트 브랜드의 도미노 인상도 가시화됐다. 비알코리아는 내달 2일부터 던킨 도넛 39종 가격을 평균 6.5% 인상하며,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쥬르 역시 31일부터 빵과 케이크 등 76종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8.2% 끌어올린다. 다만 대중적인 단팻빵과 소보로빵, 카스텔라 등 주요 품목은 동결하여 충격을 최소화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이 햇반·만두 등 27개 품목을 평균 8% 올렸고, 사조대립(참치캔·식용유지 최대 20% 인상)을 비롯해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하림 등 주요 식음료 기업들도 일제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매대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했다.

이 같은 가공식품 및 반가공 식재료의 원가 상승은 곧바로 외식업체로 불뚝이 튀었다. 매장 운영 원가율이 치솟으면서 더본코리아가 11개 브랜드 일부 메뉴를 평균 11% 올렸고, 롯데리아도 버거류 가격을 평균 2.9% 높였다. 여기에 메가MGC커피, 더벤티 등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와 주요 피자·파스타 브랜드들까지 가격 인상 행렬에 가세한 상태다.

◆유가에 포장재·농산물도 들썩

업계가 입을 모아 토로하는 가격 인상의 주원인은 환율·유가 고공행진과 인건비·포장재 비용의 동반 상승이다.

특히 브랜드유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했고, 플라스틱 용기와 필름 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가격은 톤당 982달러로 연초 대비 80% 이상 폭등하며 포장재 원가 압박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생육이 타격을 입으면서 6월 기준과 (37.1%), 쌀(11.7%), 달걀(10.3%) 등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뛰었다.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속에 밀가루, 커피원두, 육류 등 수입 원자재 가격도 고비용 구조를 고

착화하고 있다.

가중되는 인건비도 부담 요인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 정부 물가안정 기조·소비침체 여파 ‘진퇴양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외식 비용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오름세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삼겹살(200g) 외식비는 1년 전보다 4.3% 오른 2만 1321원을 기록했으며, 갈국수 역시 3.6% 올랐다.

그럼에도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 소비 침체 여파 사이에서 깊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누적된 원가 인상 압박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기조와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고려하면 가격 조정 카드를 꺼내 들기조차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시기를 지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정제마진 상승세… 정유업계, 실적회복 기대

배럴당 65달러 돌파… 수출제한 변수

아시아 경유·항공유 정제마진이 최근 다시 배럴당 65달러를 넘어서며 국내 정유업계의 수익성 개선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른 원유 도입비와 물류비 부담,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제한으로 실제 수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시아 경유·항공유 정제마진은 전쟁 이전 배럴당 20달러를 웃돌던 수준에서 최근 65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며 약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이달 말까지 디젤 수출을 금지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정제마진 강세는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2분기에도 정제마진과 유통기유 사업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에프엔가이드 컨

센서스상 SK이노베이션과 에스오일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조4123억원, 9415억원으로 전망된다. GS칼텍스와 HD현대오일뱅크도 정제마진 개선의 수혜를 입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정제마진 상승이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가 상승으로 원유 도입에 필요한 운전자본 부담이 커지고 희망봉 우회 운송이 장기화하면 운임과 전쟁위험 보험료도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의 석유제품 수출 제한 조치가 유지되는 만큼 해외 판매 확대에도 제약이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공급보다 정제제품 공급의 정상화가 더더 하반기 정제마진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고가 원유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이 늘면 실제 실적 개선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국민연금공단, 6개 벤처투자사 MOU 체결

» 1면 ‘李 대통령, 한·미 다음…’서 계속

이어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문화적 경쟁력까지 갖춘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하기 어려운 혁신의 거점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해외 창업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비자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민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사 6개사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미 혁신 생태계 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벤처투자사 6개사는 한국의 기술·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한 국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연금공단과 협력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반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대통령은 전날(24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도약의지와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서예진 기자 syj@

디지털화폐 시대 ‘눈앞’… 금융약자 위해 최소 지위 보장해야

디지털 결제 시대

현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민간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현금 활용을 줄여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정책적 차원으로 현금 사용을 줄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화폐’의 도입도 검토되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고령자나 미성년자, 일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현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 한국서도 ‘디지털화폐’ 도입 임박

한국은행은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를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차 테스트에서 예금토론에 기반한 결제 시스템을 점검했다면, 이번 2차 테스트는 다양한 업종에서의 송금·결제·자동 입출금 등 예금토론의 상용화를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 2차 테스트에는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을 비롯한 9개 은행이 참여한다.

‘CBDC’는 복제가 어렵고 추적이 용이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민간에서 기존 통화 가치와 연동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 중앙은행이 각 은행에 CBDC를 공급하면 각 은행은 이를 매개로 예금토론을 발행하며, 소비자는 해당 예금 토론을 통해 화폐를 전산화 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에서도 디지털화폐의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예정에 맞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통화 가치와 연동돼 발행되지만, 송금이나



한 시민이 휴대전화의 간편결제 앱을 활용해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서 ‘프로젝트 한강’의 운용 성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환전 시 발생하는 비용이 낮고, 기존 통화 대비 제약도 적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거래에서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해외에서도 ‘현금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은, CBDC 2차 실증 마무리 수준
9개 은행 예금토론 상용화 검증
소득 대비 현금 지출 8.4%로 급감
카드·간편결제 중심 전환 가속

스웨덴에서는 과반수의 은행 점포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으며, 중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송금이나 대금 지급의 대부분을 ‘알리페이’나 ‘위챗’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진행한다.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유럽연합(EU) 소속국 일부는 고액 결제 시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운영 중이다.

◆입지 좁아지는 현금

국내에서 현금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월평균 활용 현금은 32만4000원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 대비 현금 지출은 8.4%에 그쳤다. 10년 전의 29.6%와 비교해 21.2%포인트(p)나 급감했다. 국민 대다수가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간편결제 등 비현금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

현금 활용이 줄어드는 것은 결제 및 유통 편의성 때문이다. 소비자는 휴대의 번거로움이나 분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업체 측에서도 유통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4개 광역시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가 보편화됐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키오스크는 현금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형 은행 점포에서도 사용처가 보관 비용이 큰 ‘동전’을 제한적으로만 수용한다.

현금의 입지는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정책을 통해 ‘현금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하고 있어서다. 카드나 간편결제 등 ‘비현금지급수단’은 결제 이력이 남아 만큼 탈세 가능성이 낮으며, 사용처가 확인되는 만큼 통제를 벗어나는 화폐 유통성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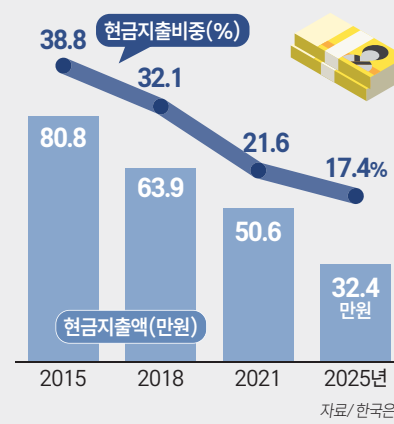
성인 45.8% 전면 전환에 반대
59.1%는 사용 보장 필요성 공감
고령층·미성년자 접근 대책 시급
전산망 마비 대비 대체수단 필요

◆ 현금, 최소한의 입지 보장돼야

우리 사회가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금에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나 간편결제, 디지털 화폐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비상 상황에서의 사용도 고려해야 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45.8%는 ‘현금없는 사회’를 반대했다. 현금없는 사회를 찬성하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9.1%는 금융약자가 거래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22.2%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 월평균 현금지출 규모



경제활동이 곤란해지는 것을 염두했다. 특히 현금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59.1%로, 2022년의 49.6%보다 9.5%p 늘었다.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 중인 해외 주요국에서도 현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은행의 현금 취급률이 낮은 스웨덴에서는 최근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와 ATM기기 유지를 의무화했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가 소매 매장의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

을 겪는 고령자, 현금이나 체크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신용점수 하락이나 압류 등을 이유로 신용결제 수단의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비현금지급수단의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우리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현금 사용률이 하락하는 도시 지역과 달리 고령자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률이 높고, 카드를 제외한 비현금지급수단의 결제 인프라도 입도 더더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금없는 결제 환경이 주류가 되면서 간편결제사들이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쟁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다만 기존 단말기를 무료로 개선하거나 신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형태인 만큼, 결제 인프라가 미비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프라 설치가 더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은 현금 보유 및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환수 동전 폐기… 10원·50원 입지 축소

≫ 1면 ‘현금 없는 사회…’서 계속

소비 생활에서도 현금의 입지는 좁아졌다.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결제 시 카드·페이앱 중심의 현금 사용이 불가한 키오스크를 우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현금 사용이 아예 불가하다.

우리 사회에서 현금이 빠르게 퇴출되는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현금은 사용자의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발행·유통·회수 등 전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아울러 카드나 페이앱 활용 시에는 결제 이력이 명확하게 남는 만큼, 미신고 결제 등 세금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진다. 정부가 정

책적으로 현금 사용을 줄여나가는 이유다.

특히 휴대가 불편하고 발행 및 유통 비용도 높은 동전의 입지는 더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굴곡압착 소각’ 방식의 주화 폐기에 돌입했다. 더는 유통되지 않고 한으로 환수되는 동전이 늘어나면서, 대량 보관 중인 동전을 더는 활용할 수 없도록 변형 및 폐기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동전의 역할은 ‘잔돈’으로 제한된 만큼, 사실상 퇴출된 1원 및 5원 동전처럼 10원 동전과 50원 동전도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모바일 카드 58종으로 확대… 터치·QR 결제 경쟁 본격화

실물 미제시 이용 규모 7.3% 증가
간편지급서비스는 51.9% 급증
잠금 해제만으로 단말기 인식 가능

카드 소비의 중심이 실물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카드사들이 모바일 카드 발급을 확대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고도화하면서다. 동시에 쿼알(QR) 결제 시장까지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실물카드 의존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실물 없는 모바일 카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3종의 신용카드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총 58종의 상품에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계산 후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있다. /뉴시스

모바일 카드는 별도의 플라스틱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다. 기본 연

회비는 없으며 카드 발급부터 신청, 이용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서비스 확대는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카드 이용이 확산하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체로 자리 잡은 금융 트렌드에 맞춰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연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바일 전용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 트렌드는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물카드 미제시 카드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 이용 규모는 0.4% 감소했다. 특

히 카드 간편지급서비스 이용 규모는 같은 기간 51.9% 늘어나며 실물카드 미제시 이용 증가를 견인했다.

일평균 이용액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실물카드 미제시 일평균 이용액은 2022년 1조3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68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실물카드 제시 이용액은 같은 기간 1조4160억원에서 1조405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자연스레 모바일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국민카드는 ‘KB페이 탭앤페이’ 서비스를 선보였다. 앱을 실행하거나 결제 메뉴에 진입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해제한 뒤 단말기에 터치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현대카드도 지난 5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앱 실행 없이 잠금화면만 해제하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결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QR 결제 시장까지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실물카드 의존도는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실제비싸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등은 주요 카드사들은 해외 QR 결제 시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QR 결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결제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SK하이닉스, HBM 공급 확대·美 AI 시장공략 ‘투트랙’

美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엔비디아와 약 6090조 규모
AI 인프라 구축 포괄적 협력
MS 데이터센터에 메모리 공급
美 혁신기업과 14.6조 규모 투자
현지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투자를 늘리며 미국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메모리 공급과 전략적 투자를 병행하며 글로벌 AI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K-AI 서밋’에서 엔비디아와 총 5000억달러(약 690조원) 이상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나섰다. AI 팩토리 구축부터 AI 메모리 공급까지 아우르는 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전략적 AI 팩토리 및 반도체 협력 MOU(업무협약)’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용으로,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공급과 공동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핵심 역할을 맡는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플랫폼 AI 팩토리 아키텍처인 ‘DSX’ 플랫폼 기반의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 ‘베라 루빈(Ver a Rubin)’에 HBM4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되

는 고성능 AI 팩토리의 핵심 메모리 역할을 맡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AI 메모리 장기 협력도 확대한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사업의 성장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을 비롯해

에이전틱 AI, 퍼지컬 AI로 확대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HBM 등 차세대 AI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최적화할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양사는 급증하는 AI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서버용 메모리를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중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서버 환경에 적합한 메모리 솔루션을 공동 발굴하고 실제 서버 환경에서 성능 검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 협력과 함께 미국 AI 생태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미국 혁신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 총 100억달러(약 14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 AI 반도체와 메모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유망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광통신 스타트업 아비세나가 진행한 1억 2000만달러(약 1760억원) 규모

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며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 확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 에치드의 투자에도 참여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40억달러(약 5조 8460억원)를 투입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시설은 차세대 HBM 생산과 AI 반도체 패키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에 90억달러(약 13조 1500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며 미국 사업 기반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동시에 현지 투자와 생산시설 구축을 병행하면서 미국 AI 공급망 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테크와 퍼지컬 AI 전환 가속

엔비디아·웨이모 등 전략적 협력 확대 美 현지기술 생태계 기반 전환 추진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기술·인재·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퍼지컬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AI 팩토리 등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연결하며 도시 단위의 통합 지능화를 향한 퍼지컬 AI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인 ‘퍼지컬 AI 비전’을 공개했다. 자동차와 로봇 등 개별 기기의 지능화를 생산시설과 같은 산업 공간으로 확대한 뒤 궁극적으로 도시 단위의 통합 지능화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AI 팩토리 등을 아우르는 퍼지컬 AI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 /뉴시스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퍼지컬 AI 구현을 앞당기려면 제조·모빌리티·로봇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축적한 역량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소프트웨어와 AI 인프라, 알고리즘 기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위해 엔비디아와 웨이모, 구글 딥마인드 등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퍼지컬 AI 기술 개발부터 산업 현

장 적용까지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엔비디아와는 AI 연산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비롯해 로보틱스와 제조 AI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정 회장은 서밋 당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찾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자율주행과 로봇, 제조 AI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가 지난달 8일 서

을 서조구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정 회장을 만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회동한 만큼 AI 연산 인프라 구축과 기술 공동 개발 등 주요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한층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담에서는 현대차그룹이 미래 기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새만금과 연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방한 당시 새만금을 한국의 ‘AI 밸리’로 언급하며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협력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10여년간 구축해 온 현지 기술 생태계도 퍼지컬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이미 지난 2011년 실리콘밸리에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조직인 ‘현대 벤처스’를 설립한 뒤 2017년 이를 ‘현대 크래들’로 개편해 AI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유망 스타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공동 개발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첨단플랫폼(AVP)본부 산

하에 ‘AVP 실리콘밸리’를 신설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애플, 도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TRI), 엔비디아 등을 거친 제러미 마(Jeremy Ma) 전무를 책임자로 영입했다. 현지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개발을 확대하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AI 기술의 융합과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기술 협력과 함께 글로벌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오는 9월 실리콘밸리에서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을 열어 AI와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 분야 인재들에게 그룹의 기술 비전과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한다. 그룹 최초의 통합 기술 인재 채용 프로그램인 ‘HMG 글로벌 테크 토틀런트 채용’도 포럼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네트워크는 기초과학과 교육 분야로도 확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샌프란시스코의 체험형 과학관인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측은 체험형 과학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현대차그룹이 2032년 서울 글로벌비즈니스스콤플렉스(GBC)에 조성할 과학관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한·중·일 ‘전고체 배터리’ 각축… 양산공정·공급망 경쟁

韓, 적용처 다변화 등에 초점
中, 사용화 일정·생산계획 구체화
日, 도요타 중심 초기 공급망 구축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양산공정과 소재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은 각 기업을 중심으로 셀 개발과 양산공정 검증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표준 마련, 일본은 완성차·소재 기업 간 협력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당장 2027년을 전후로 시제품 생산과 차량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율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본격적인 양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중·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시제품 생산과 공정 검증, 소재 공급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차세대 제품이다. 화재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전기차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수요가 있는 분야의 활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양산공정 검증과 적용처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SDI는 전가차용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와 함께 지난 3월 퍼지컬 AI용 파우

더형 샘플을 공개했다. 수원 연구소의 파일릿 라인 ‘S라인’을 기반으로 시제품 생산과 소재·부품·공정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과 소재·공정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소재·공정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흑연 음극 기반 전고체 배터리는 2029년 상용화를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산 원가와 공정 효율을 낮추기 위한 건식전극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SK온은 대전 미래기술원의 파일릿 플

랜트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며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온간등압프레스(WIP) 공정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자동화와 생산성 문제를 보완한 ‘WIP 프리’ 기술을 적용해 양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9년 800Wh/L급 제품 상용화가 목표다.

중국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일정과 생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CATL은 2027년 전고체 배터리의 소규모 생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BYD는 2027년 차량 탑재 실증을 거쳐 2030년께 대규모 생산에 나서는 로드맵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와 만고체 배터리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 기준을 담은 국가표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기술 분류와 평가 기준 정비를 추

진하고 있다. 대규모 내수시장과 소재·셀·완성차로 이어진 자국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관련 기준까지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완성차와 소재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전고체 배터리 초기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도요타는 이데미쓰코산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스미토모메탈마ining과는 충·방전 과정의 성능 저하를 줄인 양극재 개발과 양산을 추진 중이다.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와 차량 적용을 주도하고 소재 업체가 핵심 부품 공급을 맡는 방식이다. 도요타는 이를 토대로 2027~2028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

/원관희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KOREA



대한민국 유도! 이제 나를 보여줄 시간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의 도전, 신한이 함께합니다

이준환 선수

김민종 선수

이현지 선수

김하윤 선수

허미미 선수

신한은 2023년부터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며,
대한민국 유도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이번주 처리 추진… 국힘 총력 저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등 핵심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국힘 “법치주의 훼손 법안” 반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이번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 채택안의 세 가지 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의 유지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노인 학대, 아동 학대)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주말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주초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성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이번주 초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과반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 위원장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을 마땅히 견제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형소법 개정 반대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지만, 당 내 강경파와 강성당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더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이 사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헌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며 “주무 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면서 “소신도, 책임도 없

는 장관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위와 TF 등을 구성해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형소법 개정안 반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을 놓고 후보 추천과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추가로 협의에 나선다. 특검 추천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야 중 한 쪽이 거부하면 특검 추천이 어려운 구조다. 또한, 수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 서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배경선이 시작된 후 맞는 첫 주말인 26일,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가 각각 전남, 울산, 전북을 찾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민주 당권주자들 “李 지킬 책임자는 나”

‘이재명 수호’ 전면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배경선이 시작된 후 맞는 첫 주말인 26일,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가 각각 전남, 울산,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25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찾은데 이어 26일에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초청강연회를 진행했다. 정청래 후보는 주말 동안 양산, 김해, 창원, 진주, 거제, 울산 대구 등지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소화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완주,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등을 찾아 당심에 호소했다. 이 중 완주와 진안에선 2030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민석 후보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본선에 진출한 박선원·임미애·김용·서미화 후보와 인사했다. 김 후보는 강연에서 “민주당이 반명(반이재명) 후보를 최고위원에 3명이나 당선시킬 당인가”라며 “선거 중반에 판세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친명계)대 1(친정청래계) 판세에서 결국엔 5대0으로 구성되는

지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떠났던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이 통합을 원하는지, 합당을 원하는지 알아보겠다. 애매모호하게 합당을 선언해서 당을 엉망으로 만드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후보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운 후보와 함께 울산을 찾았다. 정 후보는 당원 간담회에서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자신을 압박하는 구도로 짜여진 것을 두고 “싸움도 1대1이었으면 좋겠다. 2대1, 3대1로 하려니까 제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날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의 5000억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을 두고 “특히 이 대통령께서 현대차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 전북 주민들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쑤하신 것은 전북의 미래산업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주신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전국 집회 종료… 장외 행보는 지속

참정권 수호집회 대구 끝으로 마무리 국힘 “공식 일정 아닌 자율적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대구를 끝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 순회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올림피아공원에는 계속 방문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2일), 전남·광주(16일), 경기도 용인(23일) 등을 차례로 찾아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해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시민운동 현장 방문은 대구 방문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예고한 일정대로 지난 23일 경기 용인 수지구, 25일 경남 김해와 대구를 찾아 전국 집회 참석을 마무리했다.

대구 집회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 결의대회’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김상훈·강대식·김승수·이인선·이달희·최은석·구자근·이진숙 의원 등 대구 지역 현역 의원과 김재원·김민수·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민전·박대출·박준태·서천호 등 일부 의원도 얼굴을 비쳤다. 앞서 열린 김해 집회에 동행한 현역 의원은 없었다.

26일 장대표는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해·대구에 수많은 청년과 시민이 모였다”며 “무더위에도 거리에 나서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다”며 전국 참정권 수호 집회 일정을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 광장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장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그런 주장이 오히려 음모론이었음이 입증됐다”며 “이제 국민이 누가 옳고 틀렸는지 진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앗김 참정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함성은 멈추지 않는다”며 “절절한 국민의 함성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순회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장 대표의 장외 행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피아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시민 집회에 개인적으로 방문을 계속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역시 정치인이 시민들이 모인 현장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림피아공원에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참정권을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정치인들은 일말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시민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훗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외면한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 대표의 올림피아공원 방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올림피아공원에 나간 사람이 전부 강성 지지자는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은 결국 강성 지지층이기에 올림피아공원에 가면 강성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장 대표의 올림피아공원 방문 빈도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조작 사건이 밝혀져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선관위)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 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았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 N pay

네이버페이에 우리은행 퇴직연금이 문을 열었습니다

포인트, 쿠폰, 멤버십 할인
혜택이란 혜택은 다 찾으시면서
퇴직연금 혜택은 챙기고 계신가요?

세액 공제부터
리밸런싱, 연금 자산관리까지
쉽게 챙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은행 퇴직연금 상담 연결도
네이버페이에서 간편하게

N pay

우리은행퇴직연금점

OPEN

WOORIBANK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판매회사별보호상품합산) 보호됩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형IRP(대면(영업점 창구)수수료는 후취 연 0.25%~연 0.45%/DC 수수료는 수수료 할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입자 부담금 기준 후취 연 0.38%, 기업부담금 기준 후취 연 0.38~0.66%입니다. 상세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와 계약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전용 고객센터(1599-1000)(상담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6298(2026.07.15~2026.09.30)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3445호(2026-07-22~2026-09-30)

증시 활황에 비은행이 실적 견인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 돌파

KB, 수수료이익 2.9조 50% 급증
신한, 비이자이익 2.6조 19.7% ↑
하나, 증권 순이익 156% 급증
우리, 비은행 이익 비중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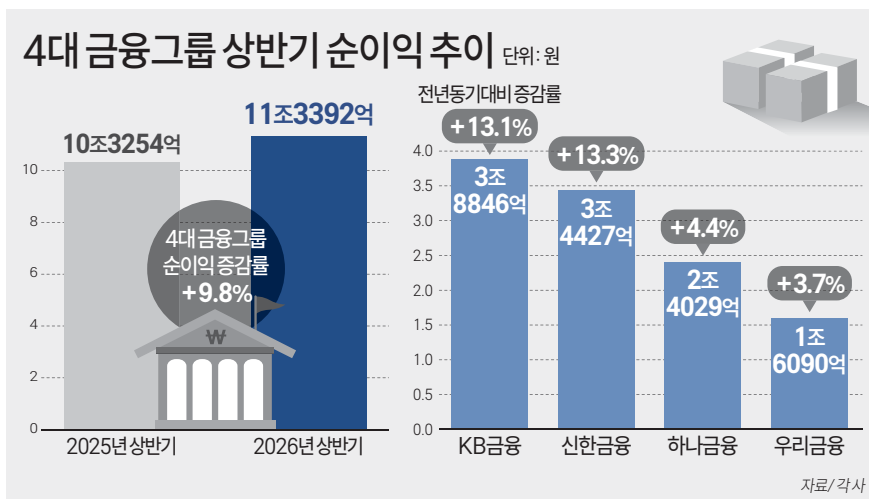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이 올 상반기 1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 부문의 성장세는 둔화했지만, 증시 활황에 힘입어 증권·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가 실적을 끌어 올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4대 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은 총 11조339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 같은 기간(10조3254억원)과 비교해 9.8% 증가했다.

KB금융은 상반기에 3조88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3조4357억원)보다 13.1% 증가한 규모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2조9612억원으로 같은 기간 50.6% 늘었다. 증시 활황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금융(IB) 부문의 실적 개선이 수수료이익 증가로 이어지며 비이자이익 확대를 견인했다.

신한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3조44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수수료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조440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1298억원으로 47.9% 늘었다. 수수료이익 증가에 힘입어 비이자이익도 2조6381억원으로 같은 기간 19.7% 확대됐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4.4% 증가한 규모다. 2분기 순이익은 1조192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회생 관련 충당금 적립과 외화환산손실 등 일회성 비용에도 수수료이익이 크게 늘어 실적을 뒷받쳤다.



상반기 수수료이익은 1조487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7% 증가했다.

특히 하나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2731억원으로 같은 기간 155.7% 급증하며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우리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60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대손비용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동양생명 편입 효과와 증권·카드·캐피탈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비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9%에서 올해 상반기 22.3%로 높아졌다.

올해 상반기 금융그룹 실적의 공통점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KB증권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82.1% 급증했다.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자산운용의 2분기 당기순이익도 각각 91.6%, 153.7% 증가했다. 하나증권 역시 상반기 기준 세 자릿수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 부문의 성

장세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금융그룹들이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은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 등으로 수익 기반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금융그룹의 순이자마진(NIM)이 추가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도 금융그룹들은 이자이익 확대보다 비이자이익 증대와 자본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B금융은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소각하고 주당 1155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한금융도 7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과 주당 74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하나금융은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고 주당 1155원을 배당한다. 우리금융도 하반기 중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소각하고 주당 220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은행, 인천 기업에 4000억 금융지원

인천신보와 포용금융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 포용금융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포국제시장과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과 함께, 하나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지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올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총 5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8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상반기 3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하반기

기에도 20억원을 추가 출연해 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과 공공배달앱 '막개비'가맹점주에게는 금융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간접 운영자금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신포국제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을 직접 둘러보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 행장은 "하나금융그룹이 오는 9월 청라로 본점을 이전해 인천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만큼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기업과의 상생은 금융기관의 책무"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AI에이전트'로 고객기반 확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우리은행이 하반기 경영 전략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영업체계를 강화와 적극적인 고객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 주재로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410여명이 참석하는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기반 영업 ▲사업그룹 간 협업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영업전략과 실행 방향 등이 주제로 설정됐다.

정진완 행장은 "이제는 지금까지 다져온 고객기반을 실제 수익으로 연결해야 한다. 외형만 늘리는 영업이 아니라,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진성 영

업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회의의 슬로건을 'WON the way, 다시 빛나는 우리'로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상반기 성과로 삼성웰렛머니·N페이 등 외부 플랫폼 제휴 확대, 금융권 최초 티켓 플랫폼 '투더문' 출시 등 고객 접점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모바일 뱅킹 앱인 '우리WON뱅크'의 월간 활성사용자 수(MAU)는 900만명을 넘겼으며,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고객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도 성과를 거뒀다. 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2024년 말 13.1%에서 올해 6월 말 15.3%로 2.2%포인트(p) 올랐고, 개선된 자본여력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원화 대출금은 총 7조8000억원 가량 늘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내수 침체’ 기업 부실… 은행권 리스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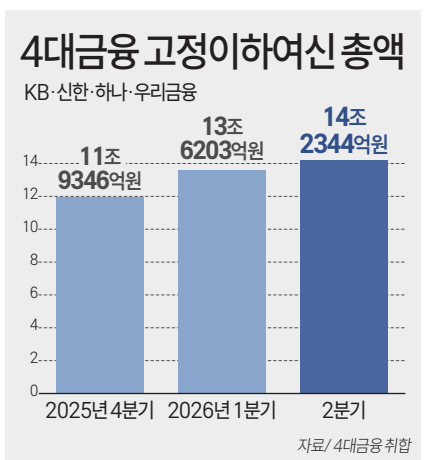
4대 금융지주, 2분기 부실대출금 총 14.2조, 전년대비 19.3% 증가
하반기에도 부실 폭 더 커질수도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K자형 성장'으로 업종별 경기 차별화가 확대되고 일부 내수 산업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은행권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총액은 14조 2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19.3% 늘어난 수준이다.

고정 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회수가 어렵거나 폐업 위험이 큰 부실대출금을 말하며, 고정, 회수익분, 추정손실의 3가지 항목을 합친 것이다. 은행 자산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문제는 하반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부실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7%로 전월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0월 0.81%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1%를 넘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산건전성 악화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끈 것은 기업대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리지 않고 연체가 전반적으로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5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0%로 2015년 5월 1.1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후 은행들

이 수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대출 공급을 확대해 온 점이 부실 확대에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까지 장기화하면서 자금 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대출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5월 말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보다 0.05%p, 전년 동월보다 0.12%p 각각 상승했다.

이는 2021년 9월 말 0.28%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대기업의 자금 사정도 점차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권의 건전성 악화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3분기에도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부문은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와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6359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물량 총 2439가구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35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439가구나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경기 고양시 원흥동 '고양창릉S3·S4북쪽',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중흥토건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일대를 재건축한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5개동, 전용면적 36~84㎡, 총 35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5가구를 일

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장위뉴타운 조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서울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도심 내 이동이 편리하다. 서울선곡초, 광운초, 남대문중 등이 도보 통학권이다.

모텔하우스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부산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대연', 부산 남구 문현동 '다샵트리센트'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삼성, 구독 서비스 보장·혜택 확대 “갤럭시 Z 시리즈, 걱정 말고 쓰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운영
기기 반납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폴더블 스마트폰 3년형 상품 추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Z 시리즈 사전판매에 맞춰 구독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3년형 상품을 새롭게 추가하고 보장 범위와 부가 혜택을 확대해 고객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사전 판매를 앞두고 혜택이 강화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후 사용하던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를 보장해 주고, ‘삼성케어플러스’와 액세서리 패키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먼저, ‘갤럭시 Z 플립8’ 자급제 제품을 구매하고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2년형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플립 유스 구독’ 혜택을 제공한다.

‘플립 유스 구독’은 1020세대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갤럭시 Z 플립8’을 2년 사용 후 기기를 반납하는 고객에게 기준가의 최대 50% 잔존가를 보장해 준다.

또한 구독 고객에게 어학 학습 앱 ‘스픽’ 프리미엄 플러스 1개월 이용권 혜택



삼성전자 모델들이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사전 판매를 앞두고 혜택을 강화한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폴더블 스마트폰 가입 유형에 기존 1년형, 2년형에 더해 ‘3년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3년형 가입 고객에게는 파손 보장에 더해 분실 보장까지 가능한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분실·파손 상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입 기간 동안 ▲무상 수리 서비스 ▲배터리 교체 서비스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년형과 2년형은 파손 보장 중심의 ‘삼성케어플러스’ 스마트폰 파손 상품을 제공한다.

새로운 8세대 폴더블 자급제 모델을 구매하고, 구독클럽에 가입한 고객은 사용 후 기기 반납 시 1년형은 삼성닷컴 기준

가의 50%, 2년형은 기준가의 40%(갤럭시 Z 플립8은 50%), 3년형은 기준가의 25% 잔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월 구독료는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 1·2년형 월 9900원, 3년형 월 1만 4500원이며 ‘갤럭시 Z 플립8’은 1·2년형 월 8900원, 3년형 월 1만 1500원이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이번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폴더블 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일상 생활 속 금융 보안, 1020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차별화된 안심 구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시멘트업계, 에너지 체질개선 속도낸다

에너지 비용 고공행진… 대응 나서
대체연료 활용·폐열발전 비중 확대

전방산업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동정세 불안과 초고환율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데다 전기 값 상승도 이어지는 등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6일 각 기업들의 ESG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총 926만톤의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4만3706TJ를 사용했다. 이는 대체연료 1만7334TJ, 유연탄 1만5322TJ, 전력에너지 1만1049TJ를 합한 수치다.

1TJ는 27만778kWh(킬로와트시)와 맞먹는 것으로 700~800가구가 한 달에 쓰는 전력량이다. 그만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쓴다. 한일시멘트는 올해에 4만4351TJ의 에너지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지난해에만 2만7369TJ의 에너지를 사용했다. 삼표의 에너지 사용량은 2023년 3만4446TJ, 2024년 3만1018TJ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회사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멘트 생산량 감소 영향도 컸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탄, 유가, 전기료 등의 고공행진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LNG 가격 급등은 시멘트 제조원가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결국 시멘트 가격 인상→건설업계 원가 상승 등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도 지난해 t당 평균 약 105달러에서 7월 현재 130달러선까지 올랐다. 2021년 kWh당 평균 10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료도 154원(2023년)→168원(2024년)→186원(2025년)으로 급등했다.

업계는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대체연료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2023년 35.9% 수준이던 대체연료 비중을 올해 53.1%까지 늘릴 계획이다. 성신양회는 2023년 26.3%였던 대체연료 비중이 2025년 38.5%로 늘었다.

업계는 또 순환연료 사용 확대, 폐열발전’이라고 불리는 에코(eco)발전을 통한 전기 사용 절감, 재생 에너지 활용 등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2023년 당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3% 수준이었던 폐열발전 비중이 2025년에는 11%까지 늘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멘트업계의 대응 전략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도 탄소감축에 필요한 순환자원 사용을 늘려 화석연료 대체율(2035년까지 53%)을 높이고 에코발전 활용을 통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인스타뷰 냉장고, 1분에 1대씩 팔렸다

LG전자 글로벌 판매 530만대 기록
‘인스타뷰’ 기능 호평… 북미 등 인기

‘노크 두 번’으로 냉장고 속을 보여주는 LG전자의 발상이 10년 만에 글로벌 530만 대 판매를 이끌어냈다.

LG전자는 LG 인스타뷰(노크온) 냉장고가 2016년 첫 출시된 후 지난달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 530만 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총판매고를 시간별로 환산하면 약 1분에 1대꼴로 팔린 셈이다.

특수 코팅유리로 마감된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두 번 노크하면 내부 조명이 켜져 속을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뷰 기능이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다.

홈파티 문화가 발달해 있고 냉장고의



LG 인스타뷰 냉장고.

/LG전자

사용빈도가 높은 북미 시장에서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기록했다. 인스타뷰의 편리함과 세련된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유럽은 20%에 육박하는 판매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 식재료 보관 성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도 프리미엄 가전수요 확대와 함께 인스타뷰 냉장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일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장은 “LG 인스타뷰 냉장고의 ‘똑똑’ 두드림이 냉장고 사용방식의 변화를 이끌었듯, 인공지능(AI)과 혁신적인 냉장·보관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식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에코프로비엠, ‘K-소듐 얼라이언스’ 출범

솔브레인·애경케미칼 업무협약 체결

에코프로비엠이 솔브레인·애경케미칼과 소듐이온배터리(SIB) 핵심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2일 충북 오창 본사에서 솔브레인·애경케미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소듐 얼라이언스(K-Sodium Alliance)’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 SIB 소재 기업들이 양극재부터 전해액, 음극재까지 핵심

소재 전반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SIB 양극재와 전해액, 하드카본 음극재의 최적 조합을 개발하고 글로벌 배터리 셀 제조사와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개발과 양산 기술 확보, 솔브레인은 전해액·첨가제 기술 개발, 애경케미칼은 하드카본 음극재 개발과 양산 기술 확보를 각각 담당한다.

3사는 개별 소재를 각각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극재와 전해액, 음극재를 함께 최적화된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품을 상호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해 소재 간 성능을 조율한 뒤 이를 글로벌 고객사에 일괄 제안한다. 고객사의 소재 검증과 배터리 개발 기간을 단축해 초기 SIB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정현수 에코프로비엠 미래기술담당장은 “K-소듐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SIB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희 기자 wh@

HD현대삼호, 美 항만 크레인 사업 수주

워싱턴 항만터미널 4기 공급 계약

HD현대삼호가 미국 타코마항의 항만 크레인 교체·확충 사업을 수주하며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 A)’ 지원에 나선다.

HD현대사는 26일 HD현대삼호가 미국 워싱턴 항만터미널(WUT)과 항만 크레인 4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미국 계열사인 WUT가 노후 크레인을 교체하고 대형 컨테이너선 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WUT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항에서 총 87기의 안벽 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47기는 HD현대삼호가 1999년 공급

한 장비다. 안벽 크레인은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설비다.

HD현대삼호는 기존 안벽 크레인 2기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터미널 야드에서 차량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야드 크레인 2기를 추가 공급한다.

HD현대삼호는 크레인 설계와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해 오는 2028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크레인 제작에는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재가 사용된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타코마항 항만 크레인 수주는 국내외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친환경·고효율 항만 장비 개발을 통해 마스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chae@

소진공,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전문가 자문단 발족… 총생산지표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체 기업수의 95.2% 가량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를 국내총생산(GDP)처럼 측정해 내놓는다.

여기에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두루 포함된다.

소진공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마포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

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가칭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GDP)’는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서 창출하는 생산과 부가 가치를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총생산지표(Small Business GDP·S-GDP)’ 구축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소진공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 가능한 연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 14.6조 AI 인프라… 세종 AI팩토리 200MW 확장

엔비디아·브룩필드와 공동 추진
차세대 GPU 약 10만개 규모 조성
브룩필드, 최대 90억달러 조달
엔비디아, 10억달러 전략투자 추진
장기적으로 1GW급 인프라 확장

네이버가엔비디아,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손잡고 총 100억달러(약 14조6300억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세종 데이터센터에 구축 중인 AI 팩토리 규모를 기존 55메가와트(MW)에서 200MW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가와트(GW)급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와 엔비디아, 브룩필드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한국의 소버린 AI 팩토리 인프라 확장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공개한 세종 '각(GAK) 세종' 데이터센터의 55MW 규모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새롭게 구축되는 AI 팩토리는 약 200MW, 엔비디아 GPU 약 10만개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은 물론 미국 AI 기업까지 사



네이버 이혜진(왼쪽 세번째) 의장과 최수연(왼쪽 첫번째) 대표가 젠스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 등 관계자들과 2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형태의 AI 컴퓨팅 인프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AI 서비스 개발을 넘어 AI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네이버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성형 AI 경쟁이 모델 성능에서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네이버도 자체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GPU 인프라를 모두 갖춘 'AI 팩토리' 사업자로 영역을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구조도 대형 프로젝트에 걸맞은 규모다. 브룩필드는 독점 자본 파트너로 참여해 최대 9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 엔비디아는 네이버에 10억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나머지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엔비디아의 투자는 관련 절차와 자금 조달 완료 등을 전제로 진행된다.

AI 팩토리는 세종 '각 세종'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플랫폼인 '엔비디아 DSX'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엔비디아 '블랙웰'과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을 도입해 차세대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AI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1GW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업과 공공 기관은 물론 글로벌 AI 클라우드 고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진 네이버 의장은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와 브룩필드와의 인프라 공급 계약으로 AI 팩토리 사업에 대한 네이버의 비전이 강력한 실행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소버린 AI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AI 공장은 국가가 AI 시대에 경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네이버, 브룩필드와 함께 한국의 스타트업과 산업을 지원할 대규모 소버린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사의 협력은 AI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는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오픈모델 '네모트론 3 울트라'를 기반으로 하이퍼클로바X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 최초로 '네모트론 연합'에 참여해 오픈모델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에이전트 툴킷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자체 스트리트뷰와 공간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해 엔비디아 '코스모스' 기반의 '서울 월드 모델'도 개발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단순한 데이터센터 증설을 넘어 네이버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역할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모델 개발에서 전력과 GPU,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는 'AI 팩토리 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네이버도 엔비디아의 컴퓨팅 기술과 브룩필드의 자본을 기반으로 한국형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AI 데이터센터 전담법인 'SK하이퍼' 에이전트 AI 확산, 토큰 부담 커져 LLM 경쟁도 효율성 중심 재편

2030년까지 자본금 7500억 출자
정석근 CTO 초대 대표로 선임
충청·호남권 15GW급 구축 추진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달 최고경영자 직속 AIDC 통합추진단을 신설한데 이어 완전 자회사 SK하이퍼를 출범하면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AI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는 SK하이퍼를 설립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SK하이퍼의 전 지분을 보유한 SK텔레콤이 7500억원의 자본금을 2030년까지 출자하기로 했다.

SK하이퍼 수장으로는 정석근 SK텔레콤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가 발탁됐다. 정 대표는 사내 AI 사업을 전담하는 AICIC 부문장을 겸임 중이다. 정석근 SK하이퍼 대표는 "SK하이퍼는 SK그룹의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청사진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SK하이퍼



는 울산에 이어 충청·호남권에 15GW급 AI DC를 구축하는게 목표다.

SK텔레콤은 SK하이퍼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SK그룹은 지난 6월 정부가 주도하는 AI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2035년까지 총 75조원을 투입해 15GW급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AI DC)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마존웹서비스(AWS), 엔트로픽,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해 아시아 내 AI 인프라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자회사 설립을 통해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AI 사업은 사내 통합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AICIC'는 AI 데이터센터와 대표 생성형 AI 서비스 '에이닷' 등 AI 사업 전반을 총괄

했다.

올해에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별도로 육성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어졌다. 이달에는 대표 직속으로 AI 데이터센터 전략을 전담하는 'AIDC 통합추진단'을 신설했고, 이번에는 전담 법인인 SK하이퍼를 출범시키며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독립적인 사업 체계로 전환했다.

SK하이퍼 설립에 따라 AI DC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초기 사업 수립부터 수익 창출 전략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경영진의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져서다.

외부 투자 유치에 따른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업만을 두고 투자자들의 시장 평가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현금 유동성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민선 기자 msjo@

에이전트 AI 확산, 토큰 부담 커져 LLM 경쟁도 효율성 중심 재편

코딩 업무 토큰 최대 1000배 소비
기업, RAG·모델 조합으로 비용 절감

개인 and 기업의 AI(인공지능) 활용이 '에이전트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대언어모델(LLM) 시장의 경쟁 기준도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성능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같은 업무를 얼마나 적은 토큰과 비용으로 수행하는지가 AI 상용화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이전트 AI는 생성형 AI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여러 단계의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시스템이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자료를 검색하고, 파일을 읽고, 코드를 작성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등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델을 반복적으로 호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토큰도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지난 4월 공개된 논문 'AI 에이전트는 당신의 돈을 어떻게 소비할까요? 에이전틱 코딩 업무에서의 토큰 소비 분석과 예측'에 따르면 에이전트 기반 코딩 작업은 일반적인 코드 생성이나 코드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코드 채팅'보다 최대 1000배 많은 토큰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작업에서도 모델별 토큰 소비량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키미(Kimi)-K2와 클로드 소넷 4.5는 GP T-5보다 평균 150만 개 이상의 토큰을 추가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토큰은 AI 모델이 문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개인 구독형과 기업용 API 등 다양한 요금 체계를 제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토큰 사용량과 추론 비용이 서비스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개인 이용자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이용이 제한되고, 기업은 API 호출이 늘어날수록 토큰 비용이 직접 증가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 '토큰절약'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콘텐츠 화면 캡처. /김보민 수습기자

다. 토큰 사용량 증가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연산과 전력 소비 확대로 이어져 AI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개인 and 기업 모두 토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프롬프트 최적화나 핵심 정보를 파일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스템 활용 등의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업무 난이도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조합하거나 지속형 메모리, 검색 증강생성(RAG)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토큰 소비를 줄이고 있다. AI 기업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젠스파크는 지난 24일 사용자의 업무 맥락을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AI 워크스페이스 6.0'을 공개했고, 데이터브릭스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업 데이터를 AI의 비즈니스 맥락에 결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삼표산업, '블루콘 스피드' 녹색기술 인증

타설 24시간 내 5MPa 강도 확보
충당 공사기간 최대 2일 단축

삼표그룹이 건설현장의 공기 단축과 안전성 향상을 이끄는 특수 콘크리트 기술로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삼표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 '블루콘 스피드(BLUECON SPEED)'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블루콘 스피드'는 일평균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MPa(메가파스칼, 1㎠당 약 10kg의 하중

을 견디는 강도) 이상을 확보하는 고성능 특수 콘크리트다.

특히 최근에는 일 평균기온 0℃ 조건에서 타설 후 24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MPa 이상을 확보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제품은 간절기 아파트 골조 공사의 충당 시공 기간을 기존보다 최소 1~2일 단축해 현장의 생산성과 시공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앞서 블루콘 스피드는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신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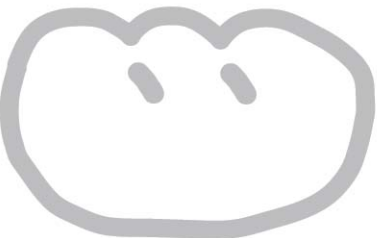
SK텔레콤

스타트업 AI 활용 지원

‘에이엑스 케이윈’ API 제공

SK텔레콤이 국내 스타트업에 자사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엑스 케이윈' 활용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스타트업 3개사에 '에이엑스 케이윈' API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2026년 모두의 챌린지 AX-LLM'의 일환이다. 국내 스타트업이 국산 AI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회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모델을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단타냐, 미장이나... 코스피 변동성·잇단 악재에 엇갈린 투심

이달 코스피 사이드카 12번, CB 2번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최고치

투자자에탁금 139조 → 104조대로
美 순매수, 단타·물타기 세력 늘어
유가상승세, 美 관세 등 악재 잔존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속도

자영업자인 김광중(41)씨는 요즘 ‘단타’ (짧은 기간 사고 팔기)에 폭 빠졌다. 김 씨는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걸 알지만, 반도체 투 톱(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 기다리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크게 느껴진다”며 “급락장에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자주 매매하면서 하루에 밥값만 벌자고 맘을 먹으니 속이 그나마 편하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행보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김 씨와 같은 단타족이 있는가 하면, 국내 투자를 접고 미장(미국 시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증시 상황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전망한다.

◆ 도박판 뻘친 코스피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 12번의 사이드카, 2번의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했다. 지난 24일까지 17거래일 동안 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장안전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달 17거래일 중 12거래일(70.58%)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지난달 기록했던 월간 최다 기



지난 2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06.27포인트(5.72%) 내린 6690.62에 마감했다. /뉴시스

록이었던 10회를 바로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매수 사이드카 20회, 매도 사이드카 21회를 합쳐 총 41번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6회보다도 15회가 많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29일에는 96.94에 마감하면서 해당 지수가 공식 발표된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평균 84.82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는 84.84를 유지하고 있다.

변동성 확대는 지수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21% 하락하면서 6690선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최고점이었던 지난달 22일 9144.55 대비 약 27% 하락한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코스피 변동성이

코인 시장보다 크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훗날 도박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극심한 변동성 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행보는 엇갈린다.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에탁금은 지난달 초 139조원대에서 이달 24일 104조 2975억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38조원대에서 33조원으로 5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서학개미’의 이달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 3026만 달러(약 3조 7114억원)로 전월 6억 3296만 달러(9284억원)의 4배가 됐다. 소나기를 피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반면, 단타와 ‘물타기’(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내린 가격에 추가 매수하는 행위) 세력이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을 사흘(21~23일) 연속 총 5471억원가량 순매도한 뒤

24일 하루에만 4500여억원을 폭풍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예탁금 상황이 오는 31일부터 이뤄질 예정인 만큼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소위 ‘물타기’를 하려는 수요도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불안한 증시, 짓누르는 악재

시장 주변 여건을 보면 악재의 연속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하반기 국내 물가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개미들의 투자 여력이 줄 수밖에 없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29만 6000원, 자영업자는 평균 56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7만 6000원 늘어난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성도 수출과 내수 회복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증시 출렁임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돼 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2배 배당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시행하려던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방안도 당초 일정한 11월 중보다 이르게 시행하는 것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약화된 상태”라며 “여기에 예탁금 규제까지 시행되면 변동성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유가 급등발 금리 상승 압력이 재차 출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상 할인을 부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면”이라면서도 “이전 금리 급등기에 비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은 최근 조정 받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 바닥을 언급하며 반등할 수 있다고 봤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인 9000을, JP모건은 12개월 목표치수 1만 2500을 각각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기술적 약세장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며 여러 지표가 코스피의 바닥 근접을 시사한다고 봤다. 다만 인공지능(AI) 투자·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 자본시출·반도체 공급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휴대폰 렌탈계약으로 빚더미”...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 금감원 Q&A

대출 조건으로 핸드폰 렌탈계약 체결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 실행 방식
eSIM 사업 투자 사기도 주의 대상

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빚으로 돌아오고, 고수익 부업인 줄 알았던 eSIM 투자가 투자금 편취로 이어지는 신종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서울 영등포경찰서와의 공조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휴대폰 렌탈 계약을 악용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등장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배달 대행업 사업자등록과 휴대폰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를 받지도 않고 유심도 개통되지 않으며, 렌탈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는 허위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추심회사까지 동원해 상황을 압박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렌탈계약처럼 보이는 만큼 형사고소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외형은 렌탈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불법 고금리 대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eSIM 투자 사기도 주의 대상입니다. 불법업자들은 여행객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에게는 허위 플랫폼 안에 개인별 온라인 점포를 제공하고, eSIM이 판매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또 유튜브에는 AI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올리고, SNS에는 수익 인증 후기와 성공 사례를 대량 게시해 정상적인 사업처럼 꾸밈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렌탈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온라인에 게시된 홍보 영상이나 수익 후기 역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찬진, 아태지역 금융감독 공조 강조

(금감원장)

싱가포르서 ‘EMEAP GHOS’ 참석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EMEAP GHOS)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EMEAP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 교환을 위해 1991년 출범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감독 체계와 최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훼손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일본 금융청(FSA),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이 참석했다. 중앙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일본은행(BOJ), 중국 인민은행(PBOC),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홍콩 금융관리국(HKMA) 등 11개 기관이 함께했다.



(왼쪽부터) 프리데리카 위디아사리 데위 인도네시아(OJK) 금융감독청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회의 기간 프리데리카 위디아사리 데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금융산업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허정윤 기자

“RIA, 매도체결 아닌 ‘결제일’ 확인해야”

결제일 따라 양도소득 공제율 변동
IMA 등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도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시장복귀결제(RIA) 이용자들에게 매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제일에 따라 양도소득 공제율이 달라져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와 은행 ETF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에도 수수료와 중도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RIA 계좌와 IMA, ETF 특정금전신탁 이용 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해외주식은 시장별로 결제까지 T+1일에서 T+3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월말에 매도하더라도 결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적용받는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다.

/허정윤 기자

美 무역법 301조 고비 넘긴 韓… 과잉생산 추가 부과엔 ‘축각’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조사 확정
한·일·스위스 우대그룹 분류
기존 세율 낮으면 총 12.5% 적용

정부, ‘15% 마지노선’ 준수 촉구
과잉생산 조사 결과 하반기 변수

美 행정부·의회·업계 전방위 설득
디지털 법·정책 차별 우려 해소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등 최근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국내 디지털 법·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전개했다.

특히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한국을 우대 그룹에 포함시켰으나, 향후 과잉생산 분야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상존해 정부의 후속 협상이 올 하반기 통상 환경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기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 및 당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교적 우대받는 그룹에 포함시키며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면서 한국을 일본, 스위스와 함께 우대받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7월 24일 법제시한)에 새로운 301조 관세 체계가 확정되면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다.

여 본부장은 방미 첫날인 2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니 상무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하고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통상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모두 합한 한국산 일반 품목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합의한 마지노선인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역시 기존 무역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방식 등은 우리 측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 분야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한 치밀한 2단계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 의회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공을 들였다. 구글, 애플, AWS, 쿠팡 등 주요 디지털 기업을 비롯해 바이오·금융·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미측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소위원회장, 앤디 킴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10명을 연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韓, 드론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ISO, 사이버보안 작업반 신설 승인
이종혁 세종대 교수 초대 의장 선임
韓 제안 국제표준화 작업 공식 착수

급성장하는 드론 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표준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인기(드론) 분과위원회(ISO/TC20/SC16) 제21차 총회에서 ‘드론 사이버보안 표준 작업반(WG10)’의 신규 설립을 승인하고, 한국의 이종혁 교수(세종대 정보보호학과)를 초대 의장으로 선임했다.

드론은 최근 안보, 공공 서비스, 취미 등 전 방위적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상정보 유출, 기체 탈취, 위치 교란 등 해킹 및 보안 우려 역시 비례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작업반(WG) 신설은 글로벌 회원국들이 드론 사이버보안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자폭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표준화의 시급성에 공감한 결과다.

한국은 국내 우수한 사이버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작업반 설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총회에서는 작업반 승인과 동시에 한국이 제출한 드론 사이버보안 국제표준화 작업(ISO/AWI 26390)이 공

식 착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물류 드론 운용절차, 레이더 센서 시험방법, 소음시험 방법 등 총 8건의 드론 관련 신규 표준 작업을 추가로 제안했다. 해당 제안들은 향후 회원국 투표를 거쳐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현재 ISO에서 개발 중인 드론 표준 26건 중 7건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을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며 “11월에 있을 서울 총회 등 관련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드론 표준 강국으로 올라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SO 무인기 분과위원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27개 정회원국과 브라질과 체코 등 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며, 차기 총회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립공원공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전국 위험지역 249곳 사전 점검
내달 31일까지 시설·인력 집중 배치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물놀이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 5월까지 전국 물놀이 지역 249곳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해 순찰과 계도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춰 산악형과 해상·해안형으로 구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대거 투입된다. 먼저 지리산, 설악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물놀이 관리지역(110곳)과 출입이 금지된 위험지역(103곳)을 철저히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지능형 폐쇄회로(CC)TV 86대, 구명환 210개, 입수방지 그물망 55개 등을 설치하고, 입수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시간대(오후 12시~6시)에 안전

인력 470명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안, 한려해상 등 해상·해안형 국립공원에서는 지자체 및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했다. 구명조끼를 비롯한 수난 구조장비 311점과 전담 인력 170명을 현장에 전면 배치했으며, 위험구역 출입통제와 조식(밀물·썰물) 위험경보시설 운영, 현장 계도 방송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피서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다각도로 전개된다. 현장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는 물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전국 267개의 문자전광판을 통해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187명 공개채용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

한국마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경마지원직 18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월 5일 오후 6시까지 한국마사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경마지원직은 구매권 발급, 고객지원, 고객구호 등 경마 시행을 돕는 무기계약직이다. 주 2일(총 15시간) 근무 조건으로, 4대 보험 가입을 비롯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로 학력, 성별, 전공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입사지원서 접수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출신 학교,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채용의 공정성을 한

층 강화했다.

채용 분야는 ▲진행직 177명 ▲발매직 6명 ▲고객구호직 4명 등 총 3개 분야다. 근무지는 랫츠런파크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사업장, 광주·천안지사, 장수목장 등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사회형평직 채용 확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형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진행직 중 10명은 보훈대상자 제한경쟁으로 별도 선발하며, 고객구호직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마사회는 지원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배려해 수도권 지원자는 과천 본사에서, 지방 사업장 지원자는 장수목장과 광주·천안지사 등 실제 근무하게 될 해당 사업장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ECO 에너지 안전지원센터’ 개소

삼척 원덕읍 시니어 14명 채용

한국남부발전이 강원도 삼척시에 지역 맞춤형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상생 기지를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4일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역 자활기관과 협력해 구축한 ‘ECO 에너지 안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CO 에너지 안전지원센터는 만 60세 이상 원덕읍 거주 어르신 14명을 채용해 직무 수행을 위한 필수 교육을 모두 마쳤다. 선발된 시니어 인력은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환형 에너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전 돌봄

등 3대 핵심 상생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역 주민과 기업 간의 따뜻한 상생의 모습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원덕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일동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뜻을 담아 임경규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장에게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임경규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뜻을 모아 전달해 주신 감사패인 만큼 그 어떤 상보다 더욱 뜻깊고 값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검정고시 출신, 명문대 벽 허물었다… 10년새 입학생 2.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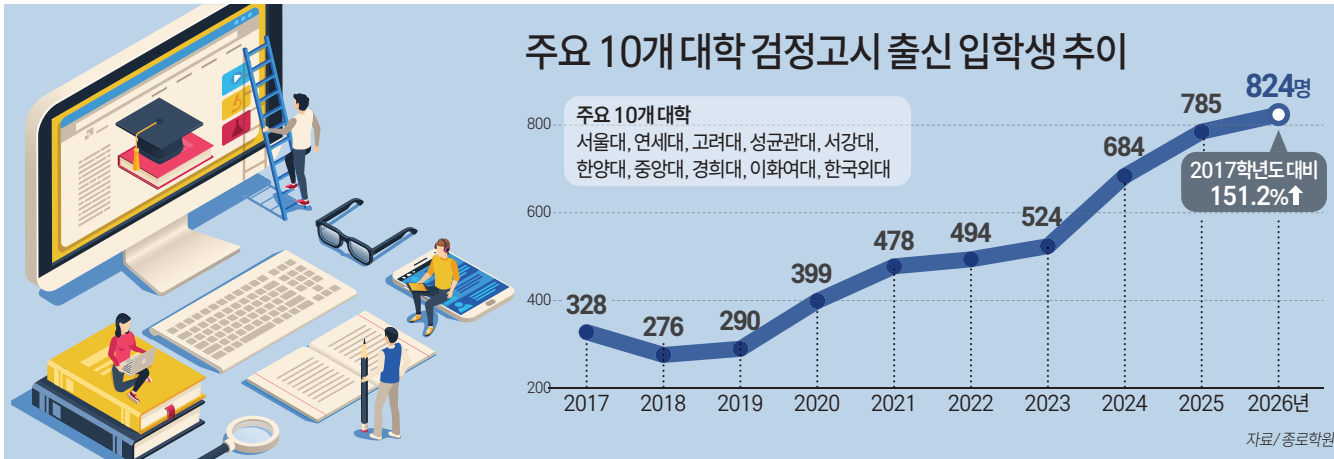
주요 10개 대학 합격생 824명
전년비 39명 증가… 서울대 55명
대입전략으로 수능 중심 정시 택해

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 824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도 55명으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전년도 785명보다 39명(5%) 늘어난 82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10개 대학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017학년도 328명에서 2020학년도 399명, 2021학년도 478명, 2023학년도 524명, 2024학년도 684명, 2025학년도 785명으로 증가했다. 2026학년도 수치는 2017학년도보다 496명, 151.2% 늘어난 규모로 10년 사이 약 2.5배가 됐다.

전체 입학생에서 검정고시 출신이 차



지하는 비율도 2017학년도 0.9%에서 2026학년도 2.0%로 높아져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9%보다 0.1% 상승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13명, 한국외대 93명, 한양대 78명, 고려대와 중앙대 각각 77명, 성균관대 76명, 이화여대 67명, 서울대 55명, 서강대 46명 순이었다. 경희대와 한국외대는 제2캠퍼스를 포함한 수치다.

서울대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한

국외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을 기록했다. 서강대는 지난해 25명에서 46명으로 21명, 84%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희대는 116명에서 142명으로 26명, 22.4%, 서울대는 47명에서 55명으로 8명, 17% 증가했다.

반면 연세대는 지난해보다 9명 줄어든 113명, 고려대는 13명 감소한 7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두 대학 모두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세대·고려대·서울대 등 3개 대학 합계

는 지난해 259명에서 올해 245명으로 14명 감소했지만, 나머지 7개 대학은 526명에서 579명으로 53명 증가했다.

서울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017학년도 19명에서 2026학년도 55명으로 약 2.9배가 됐다.

대학별 전체 입학생 대비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연세대가 2.5%로 가장 높았다. 경희대와 한국외대가 각각 2.3%, 서강대 2.2%, 한양대 2.1%로 뒤를 이었다.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각각 1.8%, 성균관대 1.6%, 서울대와 고려대는 각각 1.4%

였다.

검정고시 출신 수는 접수자도 증가세다. 2026학년도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만2355명으로 전체 접수자의 4%를 차지했다. 인원과 비율 모두 2017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특히 2023학년도 1만5488명에서 2024학년도 1만8200명, 2025학년도 2만109명,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종로학원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대체로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을 주요 대입 경로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검정고시 수능 응시생이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수능 상위권 검정고시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대입에서의 내신 비중 강화 등이 맞물리는 2028학년도 이후에는 현재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성수대교 남단 램프 포장 견고 지반 점검

서울시, 29일 밤 전면 통제
단차 원인 파악 위해 현장시험

서울시가 성수대교 남단 램프 진입부에서 발생한 단차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하고 지반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위해 29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램프가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9시부터 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성수대교 남단 램프 진입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차가 발생한 지점은 교량 본체가 아니라 흙을 쌓아 만든 접속옹벽 구간이다. 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한 뒤 포장 아래 구조물 상태와 접속옹벽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험 대상은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다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 구간이다. 현장시험이 진행되는 29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램프를 전면 통제한다. 인접한 올림픽대로 4개 차로 중 1개 차로도 일부 통제한다.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시는 현장시험을 마친 뒤 램프 진입부부터 교량 접속부까지 다시 포장할 예정이다. 차량이 단차 구간을 지날 때 발생하는 덜컹거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현장시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해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과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측정 게이지 설치 등을 통해 구조물과 지반 상태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이나 단차가 계속 진행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단차가 교량 구조물과 토사로 조성된 옹벽의 경계면에서 발생했으며 교량 본체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단차 발생 차로와 인접한 2개 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GPR 탐사에서도 지하 빈 공간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차 발생 지점에 측정 게이지를 설치해 주 2회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환경특화 강소특구 2단계 확정

국비 100억 확보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기후기술 허브로 도약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에서 ‘인천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단계 지원 대상에 최종 포함되었다. 이로써 시는 총 100억원의 국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투입해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특화발전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천 강소특구는 인천대학교를 중심으로 서구, 검단구, 미추홀구, 연수구 일대(2.17㎢)에 조성 중인 대한민국 대표 환경특화 거점으로 지난 2022년 지정 이후 총 2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ICT 기반 환경오염 처리 사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 그 결과 기술이전과 투자유치 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3년 연속 우수특구로 평가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뛰어난 성과를 인정해 지난 5월, 인천 강소특구에 대한 2단계 국가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인천 강소특구가 배출한 유망기업들의 글로벌 활약이 눈부시다.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고기능성 천연소재를 개발하는 A사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2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고, 중기부 아카데미온’에 선정되며 누적 투자액 115.5억 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폐기물 선별 자동화 혁신기업인 B사는 ‘2025 에디슨상 동상’ 및 ‘2026 CES 혁신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186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고 기후부 ‘예비 그린 유니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 푸드테크 기업인 C사 역시 글로벌 식품 서비스 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맺고 미국 병원 급식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는 이 같은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3월부터 2032년 3월까지 5년간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시비 100억)을 추가 투입해 ‘2단계 특화발전 사업’에 돌입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다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철저한 현장 실증과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체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아울러 검단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강소특구 생산거점 조성을 본격화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기도, 14개 도서관서 명사 릴레이 강연

뇌과학·문학 등 인문문화 콘텐츠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도서관에서 도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는 소통형 릴레이 명사 강연을 운영한다.

강연과 토론, 문화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 통해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강연은 뇌과학과 건축, 문학, 음악, 환경,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마련된다. 김

포 마산도서관을 시작으로 과천 정보과학도서관과 성남 구미도서관, 수원 북수원도서관, 구리 토평도서관, 안성 중앙도서관, 의정부음악도서관, 시흥 소래빛도서관, 하남 위례도서관, 남양주 별빛도서관·진접푸른숲도서관, 의왕 백운호수도서관, 평택시립비전도서관, 안양 석수도서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강연에는 장동선 뇌과학자와 김경일·정재승 교수, 송효상 건축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김겨울·천선란·홍다정 작가 등이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

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강연 주제와 일정은 도서관별 여건에 맞춰 조율해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도서관과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단순한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민이 책과 강연, 토론, 문화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기존 도서관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던 도민에게도 도서관 방문 계기를 제공해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부산, 9월부터 AI가 야간·휴일 민원 응대

전 직원 순환당직제 폐지

부산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본청 공무원의 순번제 야간·휴일 당직인 전 직원 순환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전담 인력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새 당직·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7년간 이어진 관행을 걷어내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그동안 청내에서는 당직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다음날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부산시는 구체적으로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야간·휴일 긴급 상황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AI당직 시스템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24시간 자동 응대하고, 재난상황실은 재해·사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집중하도록 했다.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 차질을 줄여 민원 처리와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3 이동희 님의 이야기

“낮선 곳에서도 한국처럼 데이터를 쓰고싶어요.
가족 챙기는 번거로움도, 요금 걱정도 없이 편하게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간편하게’ 바꿔드립니다

여행에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담아
U+ 로밍을 더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통화료 걱정 없는 해외 통화는 물론
가족 로밍 나눠쓰기 자동화까지

세계 어디서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지도록
5G 데이터 로밍 100개국 지원으로
가장 쉬운 로밍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여행을 심플하게

Simply. U+

고객님의 안전한 통신 생활을 위해 전국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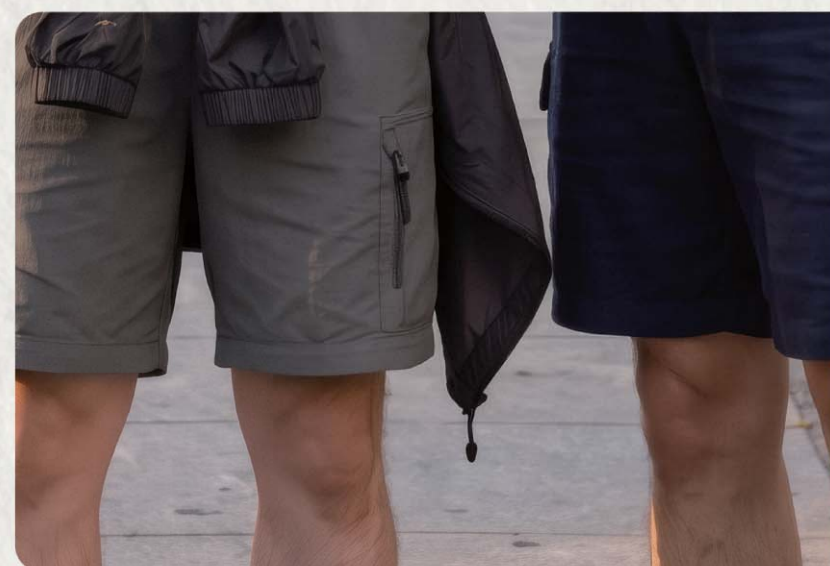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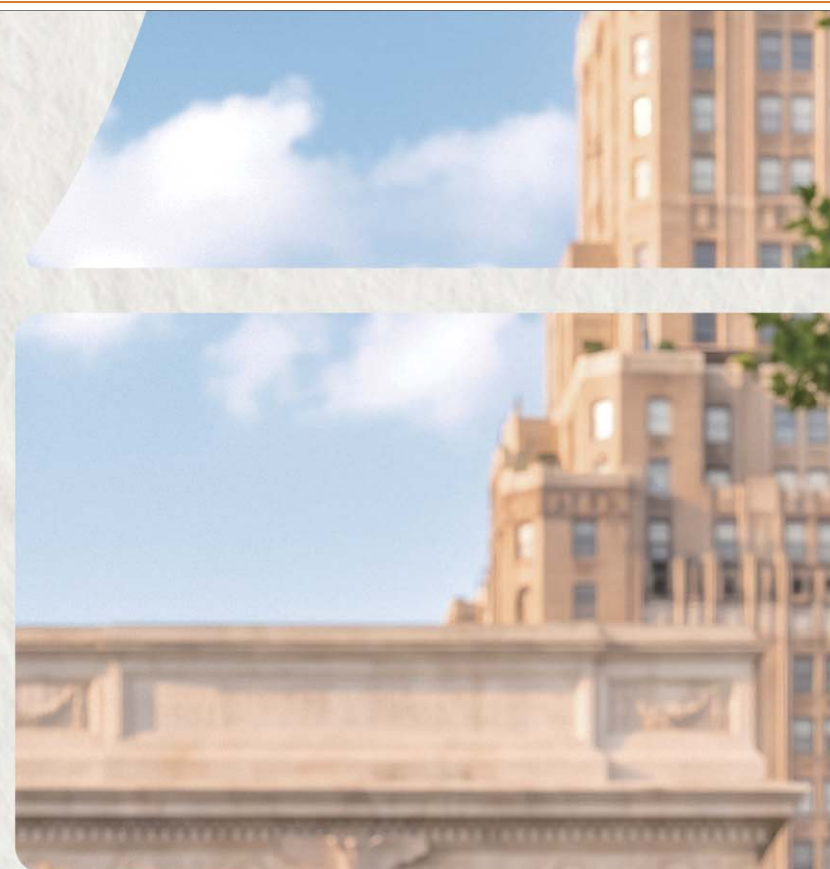
※ '로밍패스 나눠쓰기' 결합가족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대표자가 설정 시, 자동 가입 가능하며(26년 7월 기준, 국내 유일 제공)

상세 내용 및 이용 조건은 'U+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확인 가능

※ 익시오 해외 통화 혜택은 AI 통화앱 익시오를 통해 제공, U+ 로밍 요금제 가입 또는 WiFi 등 데이터 지원 환경에서 별도 통화료 없이 이용 가능

※ 익시오 해외 통화 혜택은 '일본 → 국내 통화' 서비스 제공 이후 '26년 7월부터 적용 국가 및 혜택 범위 확대 예정

※ 5G 커버리지 100개국 서비스 제공('26년 7월 기준, 자치령 포함) 익시오 로밍콜은 해당 국가 대상 하반기 내 출시 예정



‘반도체·바이오 기술’ 딥테크로 K-뷰티 초격차 굳힌다

에이피알, 뷰티기기에 반도체 적용
2029년까지 76억 프로젝트 수행

HLB생건 뷰티 브랜드 ‘미인실록’
HLB펩 협업, 펩타이드 소재 결합

K뷰티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직접 흡수하고 있다. K뷰티 영역을 딥테크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고 신소재를 적용하는 등 K뷰티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펼쳐진다.

2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주력 사업인 뷰티기기 부문에서 반도체 기술을 융합한다. 특히 외부 부품을 수급해 조립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뷰티 전용 반도체 설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포석을 놓는다.

에이피알은 ‘2026년 산업통상부 반도체 첨단산업기술개발 사업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오는 2029년까지 총 76억원 규모의 국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에이



지난 23일 열린 ‘2026 산업통상부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 사업 과제 선정’ 킥오프 미팅에서 에이피알 신재우 R&D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에이피알

피알은 뷰티기기에 적용 가능한 부품 확보, 제품 소형화 등에 중점을 둔다.

또 시스템 개발도 진행한다. 뷰티기기의 에너지 출력 안정화, 전력 효율, 인공 지능 기반 제어 기능, 제품 안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력이다.

에이피알은 향후, 이번 개발 성과를 바

탕으로 기존 가정용 뷰티기기에서 전문가용 기기, 모듈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산업통상부 과제 주관 선정으로 에이피알이 2021년부터 쌓은 뷰티기기 전문성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 K뷰티테크를 차별화하는 데 기여하

겠다”고 말했다.

K뷰티 산업에는 바이오 기술도 적극 도입된다. HLB생활건강의 뷰티 브랜드 ‘미인실록’은 HLB펩과 협업하고 있다. 미인실록은 썬지메이수 등을 활용하는 자연주의 제품을 선보여 왔고 최근 들어 HLB펩의 펩타이드 소재를 더해 글로벌 웰니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HLB펩이 개발한 ‘커큐민 핵사펩타이드’, ‘카퍼 트라이펩타이드’ 등을 함유한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등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제품들은 루마니아 등으로 수출됐고 현지 약국 체인점 알마 파머시에서 초도 물량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HLB그룹 측은 미인실록의 한국 전통 뷰티법과 HLB펩의 고기능성 바이오 기술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커큐민 핵사펩타이드는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으로 두피 스트레스 등을 완화해 준다. 또 카퍼 트라이펩타이드는 천연 펩타이드 성분으로 콜라겐 생성 등에 관여한다.

HLB펩은 특허 원료를 앞세워 스킨케어 등을 지속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펩타이드 전문성을 집약해 독자적인 더마 사이언스 브랜드 ‘뎀센’을 추가로 공개했다.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를 중심으로 그룹 내 원료 공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그룹 성장동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 성장축이 원천 기술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K뷰티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눈길을 끌기 위한 유행과 합리적인 가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단순 모방을 따돌리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뷰티를 소비재로 다루기보다는 기업 밸류체인 전체를 바꾸는 접근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日 2030세대 홀린 ‘더현대’… 방문객 5배 ↑

도쿄에 플래그십 정규매장 열어
준비 물량 완판… K-팬덤 흥행도

현대백화점은 더현대글로벌의 첫 플래그십 정규 매장 ‘더현대(THE HYUNDAI)’가 들어선 복합 쇼핑몰 도큐 플라자 오모카도 2030세대 방문객이 더현대 오픈 이전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10일 도쿄 오모테산도 거리의 복합 쇼핑몰 도큐 플라자 오모카도 3층에 플래그십 정규 매장 더현대(THE HYUNDAI)를 오픈했다.

일부 상품들의 완판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더현대(THE HYUNDAI)가 브랜드와 협업해 선보인 ‘코이세이오038’ 펌킨 스커트는 신상 컬러를 단독 공개한 후 준비했던 물량이 오픈 첫 주말 모두 완판됐다. K팝 아이돌 창작으로 유명세를 탄 ‘더블러버스’의 선글라스, ‘히에타’의 타일라



오모테산도 더현대글로벌 플래그십스토어 고객들 줄서는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백, ‘스탠드오일’의 미오 버킷백 등 주요 K패션 아이템들도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다.

K팬덤 또한 주목 하고 있다. 일본 더현대 공식 앰버서더 ‘TWS(투어스)’ 포토카드 증정 이벤트 당일 오픈런이 섰고, 현대백화점은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차 증정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캐릭터 및 팬덤 IP 콘텐츠 플랫폼 ‘워드뮤’에서 판매한 투

어스 굿즈는 일부 상품이 조기 소진됐다. 더현대(THE HYUNDAI)매장에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유통사 60여 곳의 관계자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030년까지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거점에 10여 개의 플래그십 매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동아제약 ‘듀오버스터’ 이중정 구조 적용 구강유산균 선택

동아제약의 구강케어 브랜드 듀오버스터가 이중정 설계로 안전성과 섭취 편의성을 모두 잡은 구강 유산균을 선보인다.

동아제약은 국내 구강유산균 최초 이중정 구조를 적용한 ‘듀오버스터 오랄밸런스 구강유산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듀오버스터 구강유산균은 민트층과 흰색층의 이중 구조로 유산균이 민감한 성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유산균과 기능성 부원료를 분리해 유산균 본연의 효과를 살렸다.

균주는 한국인 치은에서 분리한 특허균주 ‘S.SALIVARIUS G7’를 사용했다. 국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균주로, 한국인의 구강 환경에 맞춰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폴무원, 美 김치사업 매출 12.3% 늘어

(전년비)

비건김치 등 제품군 확대해 수요 대응

미국 내 김치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폴무원이 한국산 김치를 앞세워 현지 사업을 키우고 있다. 미국 정부의 식단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포함된 이후 수요가 늘면서 상반기 매출도 두 자릿수 증가했다.

폴무원은 미국 김치 사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법인의 김치 카테고리 매출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5% 성장했다.

회사는 전북 익산 공장에서 생산한 한국산 김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비건 포기김치 외에도 전통 젓갈 김치, 푸드서비스용 제품, 현지 유통업체 PB 제품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지난 5월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비스킷츠 야구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경기장 내부에 설치된 폴무원USA의 김치 홍보 부스에서 폴무원 김치로 만든 소스를 시식하고 있다. /폴무원

자연식품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 2026)에서 김치와 두부를 중심으로 제품을 소개했으며, 미국 마이네리그 야구단 ‘몽고메리 비스킷츠’와 협업한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百貨, 장마철 맞이 언더웨어 행사

코데즈컴바인, 오얏 등 팝업

신세계백화점이 장마철을 맞아 노와이어·심리스 등 편안한 착용감을 앞세운 언더웨어 팝업스토어와 기획전전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젤리샵 by 코데즈컴바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의 ‘젤리 브라’를 백화점 팝업 형태로 처음 선보인다. 서포트 밴드에 탄성 소재를 적용해 노와이어 제품의 편안함과 보정 기능을 함께 구현한 제품이다.

팝업 매장은 젤리빈을 연상시키는 색상과 레트로 분위기로 구성했으며, 포토존

도 마련했다. 여성 브라 세트와 남성 드로즈, 이지웨어 등을 판매한다.

강남점 지하 1층 선권 행사장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여름 란제리 특집전’을 연다. 비비안, 비너스, 바비라, 와코루 등 언더웨어 브랜드가 참여한다.

센텀시티점 지하 2층에서는 다음 달 6일까지 신규 언더웨어 브랜드 ‘오얏’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심리스 언더웨어 브랜드 ‘감탄브라’가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로, 백화점 단독 팝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얏은 순면 소재와 오얏꽃을 모티프로 한 시그니처 패턴을 적용한 언더웨어와 의류를 선보인다. 대표 상품은 리즈 블라썸 티셔츠와 체크 숏팬츠 등이다.

/김서현 기자

지누스, ‘에어 매트리스’ 할인·사은 혜택

내달 2일까지 ‘에어 쿨슬립 페스타’ 냉방 배개커버·모바일 상품권 등 제공

지누스는 공식 온라인몰 지누스몰에서 다음달 2일까지 ‘에어 쿨슬립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철 통기성과 열배출 성능을 강화한 ‘에어(Air)’ 매트리스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과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지누스 에어 매트리스는 미세한 공기 통로를 갖춘 오픈셀(Op

en Cell) 구조의 에어 메모리폼을 적용해 체온과 습기 배출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 대상은 그린티·얼티마·클라우드 등 에어 매트리스 5종과 에어젤 메모리폼 필로우를 포함한 총 6종이다.

행사 기간 에어 매트리스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베네페딩 냉방 배개커버를 증정한다. 제품 수령 후 지누스몰에 포토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서현 기자

LG생활건강, 美 월마트에 ‘더페이스샵’ 입점

‘미감수’ 비룻 스킨케어 5종 선택

LG생활건강이 북미 유통 시장에서 고객 접점을 확보하며 브랜드 입지를 적극 늘리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미국 월마트 매장 1600여 곳에 클린뷰티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입점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캐나다 월마트에 진출하고 2년 만에 미국 월마트

로 오프라인 거점을 확장하게 됐다.

더페이스샵은 클렌징 제품군 ‘라이스 워터 브라이트(미감수)’를 비롯해 주요 스킨케어 5종을 선보인다. 특히 미감수의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둔다.

더페이스샵 ‘라이스 워터 브라이트(미감수)’는 한국 전통 미용 비법인 ‘쌀뜨물 세안’을 LG생활건강의 기술력으로 재해석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신한카드, 트립닷컴과 전략적 업무협약

신한카드는 최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과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일 신한카드 부사장(오른쪽)과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이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신한카드



GC녹십자, 오디오북으로 전하는 희망

GC녹십자가 임직원 목소리로 만든 오디오북을 독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들려준다. GC녹십자는 목소리 기부 사회 공헌 캠페인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리드림'은 다문화 가정, 시각장애 아동에게 동화책을 낭독하는 목소리와 도서를 기부하는 활동이다. '소리드림' 참여 임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



HK이노엔,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HK이노엔의 유튜브 채널이 '2026 소셜아이어워드'에서 의료/제약 분야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HK이노엔은 자사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이 '2026 소셜아이어워드'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HK이노엔 전략지원실 김기호 전무가 시상식에서 의료·제약분야 유튜브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HK이노엔



IM사회공헌재단, 어르신 맞춤 금융교육 실시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최근 어르신의 안전한 금융생활과 디지털 금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금융교육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시니어 맞춤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시니어 금융교육에 참여한 강사들과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M금융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안산지청장 정원희 △부산고용센터소장 곽희경 △양양산지청장 이종복 △통영지청장 남현주 △대구고용센터소장 박수호 △구미지청장 박정범 △여수지청장 배지연 △충청남도청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후송 △충청남도청위원회 심판1과장 유현경 △경기지방법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재

부음 ▲장영일(전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전 대한치과병원협회장, 전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씨 별세, 고인평 씨 남편상, 장준호·준석 씨 부친상, 최은정·구현경 씨 시부상 = 26일,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6시 0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시안, 02-2072-2010

포스코 첫 노재 분야 명장 탄생... 이상휘 파트장 선정

내화물 유지·보수 분야 최초 명장
1988년 입사 후 노재 설비 수리 한길

포스코가 노재 분야에서 처음으로 명장을 배출했다. 38년간 노재 설비 수리 업무를 맡아온 이상휘 광양제철소 노재 그룹 파트장이 내화물 수명을 2배 이상 늘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6년 포스코 명장'으로 선정됐다.

포스코는 지난 15일 사운영회의에서 '2026년 포스코 명장' 임명식을 열고 이상휘 파트장을 올해의 명장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명장은 1988년 광양제철소 노재과에 입사한 이후 38년간 노재 설비 수리 업무에 몸담았다. 노재는 용광로와 전로 등 쇳물을 생산·가공하는 고온 설비의 내화물을 유지·보수해 설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뒷받침하는 분야다.



이희근 사장(왼쪽)과 이상휘 명장이 '포스코 명장' 임명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그의 대표 성과는 '노재 내화물 최적 설계 및 수명 향상 기술'이다. 설비에 적용되는 내화물의 설계를 최적화해 수명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내화물 교체와 보수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설비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기회손실 비용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내화물 수명은 제철소 생산성과 맞닿

아 있다. 고온의 열과 쇳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는 내화물에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워지고 보수를 위해 설비를 멈춰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지난 2015년 명장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재 분야에서 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철소 핵심 설

벤츠, 누적기부 515억... 수입차 1위

청소년 지원·환경 보호 등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강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아동·청소년 지원과 환경 보호, 자동차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사회공헌 위원회가 2014년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국내에 약 515억원을 기부해 수입차 업계 누적 기부금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형 기부 달리기 행사인 '기브 앤 레이스(GIVE 'N RACE)'다. 2017년 시작된 이후 약 16만5000명이 참가했으며 누적 기부금은 약 86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브 앤 레이스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10억원에는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이 가운데 5억원에는 지난 6월 동두천·연천 지역을 관할하는 동두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전달됐



제13회 기브 앤 레이스 현장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다.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상담, 사례관리 등을 담당한다. 나머지 5억원에는 부산시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조성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 녹지 확대와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2년 서울시와 '그린플러스 도시숲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서울 시내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해 왔다. 지난 5월 서울숲에 마련한 그린플러스 도시숲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곳을 조성했다.

/원관희 기자 wkh@

현정은 “AI시대 경쟁력은 사람의 통찰력”

(현대그룹 회장)

그룹 신입매니저 교육 수료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그룹의 미래를 이끌 신입사원들에게 동료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사옥 내 H-스타디움에서 '2026년 상반기 그룹 신입매니저 입문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료식에는 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신입 매니저들은 2주간 진행된 입문 교육의 과제를 직접 발표했으며 우수 교육생 시상과 격려

사, 사령장 수여 등이 이어졌다.

현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빠른 지금도 배움의 본질은 기술보다 사람에서 시작된다”며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그룹 구성원 모두가 동행하며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신입 매니저의 인공지능(AI) 직무활용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선임 직원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그룹의 핵심 가치와 조직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원관희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4일 연지동 현대그룹빌딩에서 열린 신입사원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동료 간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며 신입 매니저들을 격려했다.

/현대그룹

현대차, 아세안 현대컵 공식 후원

동남아 최대 스포츠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 축제 아세안 현대컵(ASEAN Hyundai Cup™)의 첫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다.

아세안 현대컵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모로독 테코 국립경기장에서 개막했다. 1996년 창설 이래 격년으로 열려온 이 대회는 올해부터 현대차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이름을 바꿨다.

직전 대회인 2024년에는 5억4000만명 이상의 누적 시청자를 기록하며 동남아를 대표하는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대회는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되며 베

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1개국 대표팀이 출전한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아르칸 디카와 협업한 소셜 콘텐츠를 선보이고, 동남아 각국의 응원 문화를 반영한 스타커로 팬들이 차량을 꾸미는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한다. 대회 개막 전에는 태국·말레이시아 등을 도는 트로피 투어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세안 현대컵™은 아세안 전역의 축구 팬들을 하나로 묶는 열정과 화합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아세안 공동체 정신을 함께 기념하는 데 기여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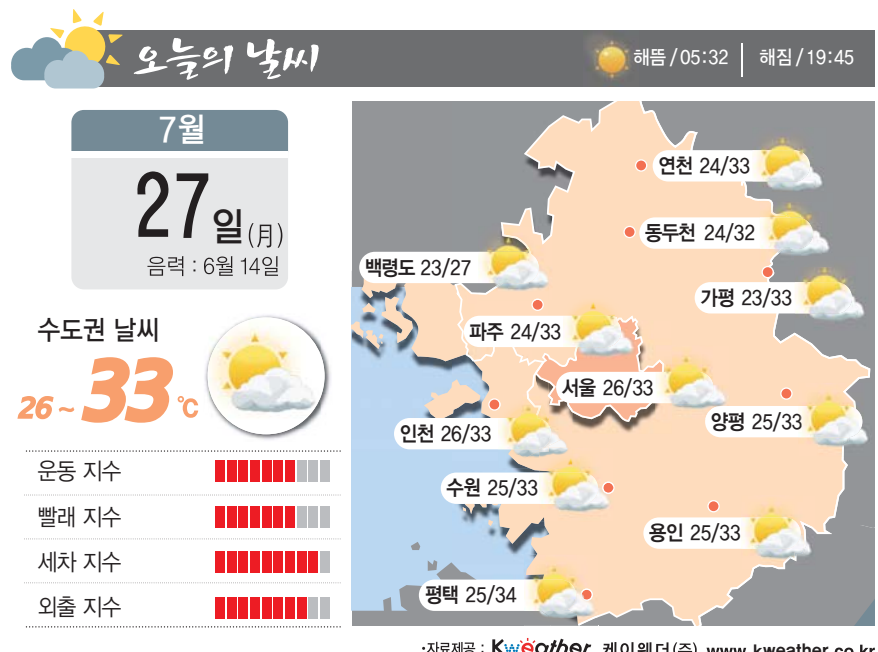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한화, 우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운영

‘우주의 조약돌’ 5기 출범

한화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우주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5기 행사를 열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우수 인재들을 발굴·육성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연말까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 등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우주기술’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회사가 파산하면 도로·터널 운영도 멈출까?



박 규 의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도로, 터널, 항만처럼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사회기반시설은 민간 기업이 짓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짓고(Build), 완공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뒤(Transfer),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며(Operate)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를 취한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도로를 건설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지만, 일정 기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영권도 공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을 맡은 민간 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파산관재인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5. 6. 선고 2017다273441)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이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으로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아

래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파산관재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이다. 쉽게 말해, 파산 당시 계약 양쪽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계약이었다면, 파산관재인이 그 계약을 이행할지, 아니면 해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위 대법원 판결 속 사건에서는 BTO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 사업시행자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며 해지권을 행사하려 했다. 만약 해지가 인정된다면,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청구를 통해 파산재단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공 인프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했다. 핵심 논거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관계는 대등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BTO 계약은 단순한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공공성을 띤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째, 양 당사자의 의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牽連性: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무계약(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되려면 서로의 채무가 맞물려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구조가 인정되지 않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 설정이라는 핵심 의무를 이행 완료했다고 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이미 줄 것을 다 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해결한 것을 넘어, 공법적 성격을 가진 민간투자사업 계약에 도산법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원합의체로 처음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TO 방식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교육교부금, 독은 남기고 물길은 넓혀야



기지 수집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물이 불어났다고 저수지의 독부터 댕출 일은 아니다. 여유가 생긴 물은 가뭄에 대비해 저장하고,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새 수로를 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교육청에 배분되는 현행 구조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약한다며 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세수에 따라 재원이 크게 오르내리는 구조는 손볼 필요가 있

다. 세수가 많이 걷힌 해의 재원을 적립해 결손기에 사용하고, 교육청의 과도한 기금 적립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변동성을 줄이는 일과 20.79%라는 법정 기준을 흔드는 일은 다르다. 수문을 고칠 일이지 독을 댕출 일은 아니다.

법정 교부율은 지역의 재정 형편이나 정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 여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비효율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이 기반부터 약화시키면 세수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결국 학교와 학생을 위한 지출이다.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이 남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급식실은 운영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학생 수만으로 정리할 수도 없다. 특수교육과 돌봄,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처럼 학교가 맡아야 할 역할도 넓어졌다. 학

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의 책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부금의 물길은 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이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은 4년제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다. 국가가 충분히 세우지 못한 대학의 자리를 사립대가 매우며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맡아왔지만, 재정은 등록금과 개별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사실상 사립에 맡겨놓고 국가의 책임은 뒤로 물릴 수 없다. 대학과 평생교육을 교부금의 활용 범위에 포함하려는 논의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0.79%의 법정 교부율은 지키고 급격한 증감은 완충해야 한다. 재원은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흐르게 하되 교육청과 대학의 집행 책임은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 새 물길을 낸다는 명분이 교육재정의 독을 댕추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lh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 (음 6월 1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생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 줄 것입니다. 72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세요. 84년생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50년생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62년생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세요. 74년생 애정운이 불리합니다. 86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은 격입니다.



51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합니다. 63년생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7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세요. 87년생 여형은 길합니다.



52년생 남방향이 길방입니다. 64년생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76년생 친척적인 기운이 주위를 가득 돌고 있습니다. 88년생 여러 사람과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53년생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줍니다. 65년생 금전 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89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54년생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입니다. 66년생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78년생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90년생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55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67년생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79년생 술자리를 최대한 피하세요. 91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56년생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68년생 귀인이 동쪽에서 기다립니다. 80년생 남의 일에 끼여들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92년생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9년생 신중하고 차분한 행동을 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81년생 금전거래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주의하세요. 93년생 조금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같이 분망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있는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됩니다.



59년생 필요 이상으로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71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83년생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95년생 기본좋은 약속을 잡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황금이라는 칼

16세기 초 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은 신대륙을 찾아 나섰다. 당시 유럽인들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엄청난 황금과 은이 있다는 풍문을 들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지금의 멕시코와 페루 지역에 도착했고 거대한 문명과 마주쳤다.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안데스산맥의 잉카 문명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새로운 문명과 만남보다 황금에 욕심을 냈다. 원주민들의 신전과 궁전에 있던 금으로 만든 장식품 탈취에 나섰다. 그들은 원주민의 종교적 물건도 오직 돈으로만 여겼다. 잉카의 황제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바쳤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은 황금을 손에 넣자마자 황제를 처형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했다. 막대한 재물을 얻은 스페인은 번영을 누렸을까? 역사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

남미에서 약탈한 황금과 은이 스페인 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돈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다. 결국, 스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파산을 선언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황금을 손에 넣은 대가가 파멸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보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재물, 즉 재성의 기운과 일치한다. 흔히 사람들은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명리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유용한 자산이 되지만, 내 기운이 약한데 재물만 넘쳐나면 오히려 재물에 휘둘려 화를 입는다. 16세기 스페인은 막대한 황금을 통제할 만한 경제적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재물을 탐하다 무너진 재다 신약의 상황이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재물은 칼과 같다. 칼을 주방장이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들면 자신과 타인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6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작출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결란 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7	1	2	6	8	9
1	8	2	9	6	9	2	8
9	6	2	7	8	8	9	2
7	8	6	2	8	9	9	1
9	9	8	2	1	8	7	6
2	2	1	9	7	6	8	9
2	7	8	8	9	2	1	9
8	1	9	6	9	7	2	8
6	2	9	8	2	1	8	7

9	2	7	8	8	1	6	9	2
2	9	1	9	6	2	8	8	7
8	8	6	2	9	7	2	1	9
7	9	2	6	1	8	9	8	2
8	8	9	2	9	1	7	6	
1	6	2	8	7	9	9	2	8
2	7	9	1	8	8	2	6	9
6	1	8	9	9	2	7	2	8
9	2	8	7	2	6	8	9	1



美 무역법 301조
고비 넘긴 한국
과잉생산 '관건'
L1



Life

검정고시 출신
명문대 벽 허물어
10년새 2.5배↑
L2



“단순 후원 넘어 아이들에게 ‘꿈꾸는 시간’ 선물하고 싶었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이영호 넥슨게임즈 ESG TF장 주예진 넥슨재단 직원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공헌도 단순 기부를 넘어 기업의 전문성을 사회문제 해결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게임업계 역시 각자의 강점을 살린 ESG 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넥슨 게임즈는 아직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영케어러’를 선택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게임즈 사옥에서 이영호 넥슨게임즈 ESG TF장과 주예진 넥슨재단 직원을 만나 ‘위드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넥슨 게임즈가 추구하는 ESG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내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시간’이었다. 기부금 규모나 지원 대상보다 먼저 언급된 것도 시간이었다. 그가 말한 시간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었다. 친구를 만나고 공부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이었다.

넥슨게임즈의 ESG 역시 그 질문에서 시작됐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 하지만 넥슨게임즈가 고민한 것은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가 아니었다.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을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만드는 것이 먼저였다.

이영호 TF장은 “지난해 넥슨재단과 함께 장기적으로 이어갈 사회공헌 활동을 논의하면서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업보다 사회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넥슨 게임즈만의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ESG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고민 끝에 선택한 대상이 영케어러였다. 영케어러는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청년이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회적 인식도 낮다. 그는 여러 사회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케어러를 접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돌봄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잃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봄 자체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아이들이 또래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시간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는 현실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결국 위드영 프로젝트가 돌려주고 싶었던 것도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는 “돌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아이들이 다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드영 프로젝트의 가장



이영호 넥슨게임즈 ESG TF장(왼쪽)과 주예진 넥슨재단 직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만들고파 영케어러 위한 ‘위드영 프로젝트’ 시작

일률적인 지원금 아닌 개인 맞춤 지원
실질적인 돌봄 부담 줄이는 데 집중
하루 돌봄시간 5.6시간→2.6시간으로
확보된 시간엔 학업·문화·진로 채워

사옥 초청·직무체험 등 전문성 더해 임직원 기부 참여 확대… 사내문화로

큰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철학은 넥슨재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졌다.

주예진 사원은 “처음부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를 목표로 했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했느냐보다 아이들의 돌봄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그 시간을 다시 아이들의 삶으로 돌려줄 수 있느냐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획일적인 지원보다 아이마다

필요한 지원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다”며 “돌봄 부담을 줄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위드영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철학은 사업 설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넥슨재단은 가족돌봄아동 지원 경험을 갖춘 초록우산과 협력해 영케어러들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아이마다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 사원은 “사업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는 일이었다”며 “초록우산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별 지원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지원도 획일적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의료비가, 또 다른 아이에게는 학업 지원이 더 시급했다. 간편식과 전자레인지도 지원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식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줄여 아이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이

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게임회사라는 특성도 사회공헌에 녹였다. 지난 2월 열린 힐링캠프에서 영케어러들은 넥슨게임즈 판교 사옥을 찾아 명예사원증을 목에 걸고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식사했다. 모션캡처 스튜디오와 사운드실을 둘러보며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고, 하루 동안 회사의 구성원이 된 듯한 경험을 했다.

이영호 TF장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회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며 “게임회사는 개발자뿐 아니라 기획과 아트, 사운드, 운영 등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우를 꿈꾸던 한 학생은 사운드실에서 게임 음성 녹음을 체험한 뒤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그는 “기업이 가진 공간과 콘텐츠도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업의 성과도 숫자로 확인됐다.

넥슨재단에 따르면 위드영 프로젝트 1기 참여 아동들의 하루 평균 가족 돌봄 시간은 사업 전 5.6시간에서 종료 후 2.6시간으로 줄었다. 확보된 시간은 학업과 문화활동, 진로 탐색 등 아이들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이어졌다.

주예진 사원은 “돌봄 시간이 줄었다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할 시간이 생겼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1기에서 돌봄 부담을 줄였다면, 2기에서는 그 시간을 아이들의 성장과 진로로 연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넥슨게임즈 내부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지난해 처음 진행한 임직원 기부 캠페인에는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1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고, 사내 동호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포장해 아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사회공헌이 특정 부서의 업무를 넘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영케어러 문제는 기업 하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역시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슨게임즈와 넥슨재단은 위드영 프로젝트를 일회성이 아닌 장기 ESG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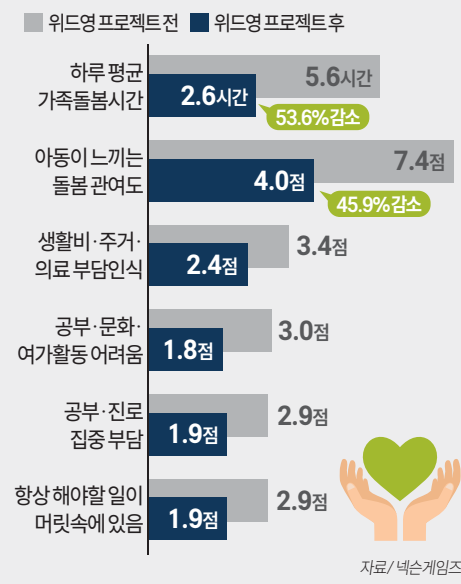


영케어러들이 사운드 스튜디오 체험을 하고 있다.



넥슨게임즈가 영케어러 지원 사업을 위해 1억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넥슨게임즈

‘위드영 프로젝트’ 성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100명 넘어…절반 이상 ‘7말8초’ 집중 /사진 뉴시스
▲권경에 변호사, ‘학폭 노쇼’ 손배소 화해권고에 이의신청

▲복지부 “건보료 상·하한선 기준 개선, 국민 부담 고려해 검토”
▲‘여고생 살해’ 장윤기 공판 27일 유족·피해 남 학생 증인신문

▲폭우·폭염에도 출근…직장인 44% “근무조정 못 받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인 193만원 썼다…관광수지 3개월째 흑자

AI·BIO 융합기술로 건강한 미래의 답을 찾다

LG는 AI와 BIO기술의 융합을 통해 암,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